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 분석

지도교수 박 종 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재 흥

2004년 8월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 분석

지도교수 박 종 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재홍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 분석

김 재 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박 중 필

본 연구는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로지도 방향의 재정립 기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제작하여,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600명과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교사 182(91%)부, 학생 573(95.5%)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 한쪽에 치우친 응답이나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불성실한 응답자 교사 5부, 학생 27부를 제외한 교사 177부와 학생 546부 등 총 723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학교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맞춰 진학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교육과정의 유연성 등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과운영체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직업 선택시 고려할 사항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래의 직업에 대하여는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주로 부모, 형제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교사와 의논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진로 상담 기회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토로하고 있어, 진로지도만을 주 업무로 하는 교사를 배치하여 충분한 정보 수집과 개인의 흥미, 적성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고 만족할 만한 진로지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진학 이유로는 학문을 쌓기 위함보다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도방안이 필요하고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진로지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들은 대체로 기능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인문숭상의식과 학력차별로 인하여 고졸 학력으로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학력보다는 능력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진로지도	4
2. 진로교육	17
III. 연구의 방법	26
1. 조사 대상	26
2. 측정도구 및 내용	28
3. 자료의 처리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및 만족도	30
2. 진로희망	33
3.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43
4. 진로지도 현황 및 만족도	50
V. 요약 및 결론	70
1. 요약	70
2. 결론	73
참 고 문 헌	76
<Abstract>	79
<부록>	81

표 목 차

<표 III-1> 교사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I-2> 학생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I-3>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28
<표 IV-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30
<표 IV-2>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31
<표 IV-3>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만족도	32
<표 IV-4> 진로 변경 의사	33
<표 IV-5>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학생)	35
<표 IV-6>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교사)	36
<표 IV-7>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학생)	37
<표 IV-8>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교사)	38
<표 IV-9> 학생들의 원하는 장래의 직업	39
<표 IV-10>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계획	41
<표 IV-1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42
<표 IV-12>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 횟수	43
<표 IV-13> 교과목이 사회생활에서 필요정도	44
<표 IV-14> 전공 분야의 직업에 대하여(학생)	45
<표 IV-15> 전공 분야의 직업에 대하여(교사)	46
<표 IV-16>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학생)	48
<표 IV-17>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교사)	49
<표 IV-18> 졸업 후의 진로 결정 상담 대상자	50
<표 IV-19> 학교에서 진로상담 대상자(학생)	51
<표 IV-20> 학교에서 진로상담 대상자(교사)	52
<표 IV-21>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	53
<표 IV-22> 학생과 상담한 내용	54
<표 IV-23> 진로지도 만족도(학생)	55

<표 IV-24> 진로지도 만족도(교사)	57
<표 IV-25> 진로지도 횡수 (학생)	58
<표 IV-26> 진로지도 횡수 (교사)	59
<표 IV-27> 진로지도 시간 (학생)	60
<표 IV-28> 진로지도 시간 (교사)	61
<표 IV-29> 진로지도 기회 (학생)	62
<표 IV-30> 진로지도 기회 (교사)	64
<표 IV-31>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학생)	65
<표 IV-32>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교사)	66
<표 IV-33> 진학반 편성의 필요성(학생)	67
<표 IV-34> 진학반 편성의 필요성(교사)	68



<그림 II-1> 진로지도 실천 모형	14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세계 또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평생직장이라는 말의 퇴조와 가치관이 바뀌면서 진로의 선택과 탐색은 일회적 성격의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진출을 목전에 둔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직업관의 혼란 등을 야기하며 학생 개개인의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진로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다양한 진로정보와 함께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명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실업교육의 현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활한 교육 활동을 제약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직업세계 진입의 통로로 인식되어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 욕구의 증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사회 제반 여건의 변화로 실업교육은 산업체와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강무섭외, 1999; 장창원외, 1998).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인문숭상의식과 대학진학 열풍,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1996년 2월 신직업교육개혁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축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기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실업고 포기'를 부채질한 격이 되었다(강길석, 2001). 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떠밀려 들어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재학생의 학습부진은 날로 심화되어 기초 학력이 턱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만을 고집하는 사회적 역기능만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2004)에 따르면 전국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1998년 35.7%에서 2003년에는 57.6%로 21.9% 증가한 반면, 지난 1998년 54.3%였던 취업률은 2003년에는 38.1%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변동의 추이는 실업교육의 위상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소질과 적성보다는 출세 지향적인 진로 의식의 확대와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방향 또한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 선택 능력을 길러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교육보다는 획일화되고 전형적인 인간형을 완성시키는 교육에 더 열중해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그들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평생을 뜻있게 살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인성, 경제적 여건, 직업적 열망, 학부모의 기대와 영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탐색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서울시교육과학원, 2000: 1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을 밝히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로지도 방향의 재정립 기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진로지도의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200명, 재학생 600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여건이 상이한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 교사의 개인적 배경 특성은 성별, 경력별, 학교별, 교과별, 담임여부별로 한정하였다.

3) 학생의 개인적 배경 특성은 성별,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로 한정하였다.

4)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였으나 표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지도의 방향에 대한 모든 변인을 제시하였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지도

1) 진로지도의 의의

진로지도(career guidance)는 초기에는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란 용어로 사용되었고 직업교육과 그 개념이 구분되었다. 특히 초기의 직업지도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자들은 진로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즉, 그들은 직업을 위한 준비만 잘 된다면 직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로지도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직업교육자들이 이 분야에 참가하게 되고, 올바른 진로지도 없이는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사실상 직업교육이 개인의 특성과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직업교육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있어서 진로지도는 대단히 중요하다(이무근, 1999: 283).

진로지도를 좁은 의미로 보면 학생들에게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지도나 상담활동을 지칭하지만 그 어원 및 발전 과정을 보면 교육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구상을 의미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나 장차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생산적이고 미래 건설적인 구성원으로서 공헌하며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충청남도 교육과학원, 1999: 140).

효율적인 진로지도는 개인적으로 생애 목표에 알맞게 도달함으로써 개인의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으며, 중국에는 자아 실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이정근, 1988: 96).

그러므로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자신의 진로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로지도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흥미 등을 인식하고,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자기 자신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2) 진로지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진로지도 교육은 1980년대 초반 학교교육에서 모순된 문제를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학자들의 요청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진로지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제주학생문화원, 2000: 20~24).



(1) 개인적 측면

첫째,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된 자아 인식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이 발전하고 고도로 분화, 전문화되어 직업의 종류가 수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일의 내용도 복잡해져서 자기에 가장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성공적 직업생활을 영위하려면,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 기능, 역할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자기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와 직업에 맞는 능력과 적성을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로지도를 통해 자아 인식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복잡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 및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수많은 종류의 일과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 없이 장래성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위 지향적 직업관, 직업에 대한 전통적 귀천의식, 기술직에 대한 천시 풍조, 화이트칼라직에 대한 지나친 선호 경향 등은 현재 개인과 사회 발전에 장애적인 가치관 또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일의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직업은 생계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이라는 관점이 학교와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속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넷째, 인생의 목표설정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 모든 직업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자기의 인생관이 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천한 직업, 불필요한 직업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지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직업 선택 능력이 매우 협소하고 편협 되어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를 통하여 인생의 진로가 다양하며, 자기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진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목표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2) 국가 사회적 측면

첫째, 과열과외 및 재수생 문제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을 나와야만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출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전통적 직업관 때문에 입시열풍과 재수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벌위주의 취업구조는 일과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직업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무직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일과 직업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가치관 및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들이 그들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고, 직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 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 일의 습관을 습득시킴으로써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넷째, 진로교육은 직업수행에 있어서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에 대한 불만을 낮출 수 있고, 또 최소한도 필요한 직업적 기능을 습득하여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하여 국민 전체의 직업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공헌을 꾀하고, 전인교육인 생애교육을 지향하며,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신장됨으로써 인력자원의 효율화를 기하여 직접적으로는 가속화하는 직업의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진로지도는 필요하다(허현, 2002: 20).

3) 진로지도의 방법

(1)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특정 교과나 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모든 교과를 통해 창조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모든 교사는 이를 위해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생애를 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기의 존재의식과 능력에 맞도록 돕

는 것 즉, 자아실현을 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과정에 진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것만큼 효과적이며 확실한 방법도 드물다(이정근, 1988: 52).

(2)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지도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참여아래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성과 소질의 발견 및 신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특별활동은 그 교육과정 자체가 진로지도의 핵심이 된다(부산시교육연구원, 1997: 34).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인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이다.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은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교별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생의 요구, 학교의 여건, 지역 사회의 실정 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도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진로지도의 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고, 또 실제 취업 시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급수의 취득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됨으로써 교육과정적 차원의 진로지도의 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3)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

교사의 오랜 경험과 진로지도사례, 그리고 획득한 각종 취업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훌륭한 진로지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즉 교육과정운영을 통한 진로지도는 학생의 인격과 취업조건 내지 능력의 향상인데 비해 상담을 통한 지도는 취업의 성격과 학생의 취미 및 능력의 조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이 그것이다. 따라서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의 내용으로서는 넓은 의미로는 진로정보의 전달, 구체적인 직장의 알선, 급료 문제를 비롯한 일의 역할이나 보람 등 진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올바른 직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초창기의 진로 지도를 위한 상담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표준화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합되는 직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직업 환경의 변화,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전문화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연결이 이제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직면하게 될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그 이상의 노력과 계획적인 지도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사항은 더욱 넓어져서 학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사고·이상·태도의 변화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진로를 위한 상담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 발달을 위해 교과활동을 통한 진로지도와 함께 중요한 생애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며, 그들이 당면하는 진학과 직업선택에 관련시켜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자기이해,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학탐색의 과정, 진로계획, 그리고 진로 의사 결정을 돕는데 역점을 둔다(김충기, 1995).

(4) 진로정보를 통한 진로지도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보다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들 자신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잘못 선택하여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고민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이 학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탐색, 수집, 관리, 제공해 주어 학교생활이나 장차 미래사회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도와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로정보란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교과 활동이나 생활지도 대부분이 진로 정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정보는 ① 학생 자신의 개성 및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 자료. ② 변천하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자료. ③ 구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식. ④ 장래의 자기 자아실현에 필요한 사전지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의 모집 방법과 진로정보의 전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진로정보의 모집방법

진로정보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원을 대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

된 자료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분류, 보관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진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천도 다양하나 원천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① 각종 전문 단체와 기업체에서 발간된 간행물. ② 각 정부기관의 부처에서 발간되는 자료(특히 노동청이나 경제기획원 등). ③ 직업에 관계되는 단행본 및 회사 기업 연감(직업사전포함). ④ 각 기업체(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발간되는 홍보용 책자. ⑤ 지역사회 조사물 및 연구보고. ⑥ 과학기술 정보센터, 산업경제연구원 등에서 연구 발행되는 책자. ⑦ 사회교육기간에서 발간되는 연수 자료나 홍보용 자료. ⑧ 직업에 관련된 월간지(취업정보, 리쿠르트, 전문인, 직장인 등). ⑨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사례 및 연구보고서 등이 될 것이다.

나) 진로정보의 전달 방법

진로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① 인쇄매체를 통한 전달 방법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전달 형태가 바로 인쇄매체를 이용한 방법이다. 진로정보를 수록한 인쇄매체로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직업 안내로부터 두툽한 직업사전에 이르기까지 또 직업을 소개하는 카탈로그부터 신문이나 잡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인쇄매체는 일반적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내담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② 기타 매체를 이용한 전달 방법

인쇄물 이외에도 각종 시청각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 또는 보급할 수 있다. 많이 이용되는 시청각 매체로는 게시판이나 전시, 교육용이나 상업용 텔레비전, 비디오 테이프, 슬라이드, 영화, 마이크로 필름 등이 있다.

③ 각종 집회

진로에 관한 정보는 강연회, 토론회, 진로의 날 행사 또는 수업활동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때로는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④ 면담이나 상담을 통한 방법

면담이나 상담을 통한 전달 방법은 해당 정보에 대한 권위자나 담당자를 내담자에게 소개하여 그와 면담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학생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비교적 깊고 자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방법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 가능성과 흥미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교환하고 적합한 내용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교환하고 적합한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다.

⑤ 시뮬레이션

이 방법은 게임이나 역할극 등의 탐색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직업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선택한 직업이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⑥ 견학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장이나 회사 등을 방문하게 하여 필요한 진로 정보를 얻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 작업상황에서 수행되는 일을 직접 관찰하고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직장의 분위기에 젖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다.

견학이 끝나면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과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관찰한 사항이 자신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

치리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⑦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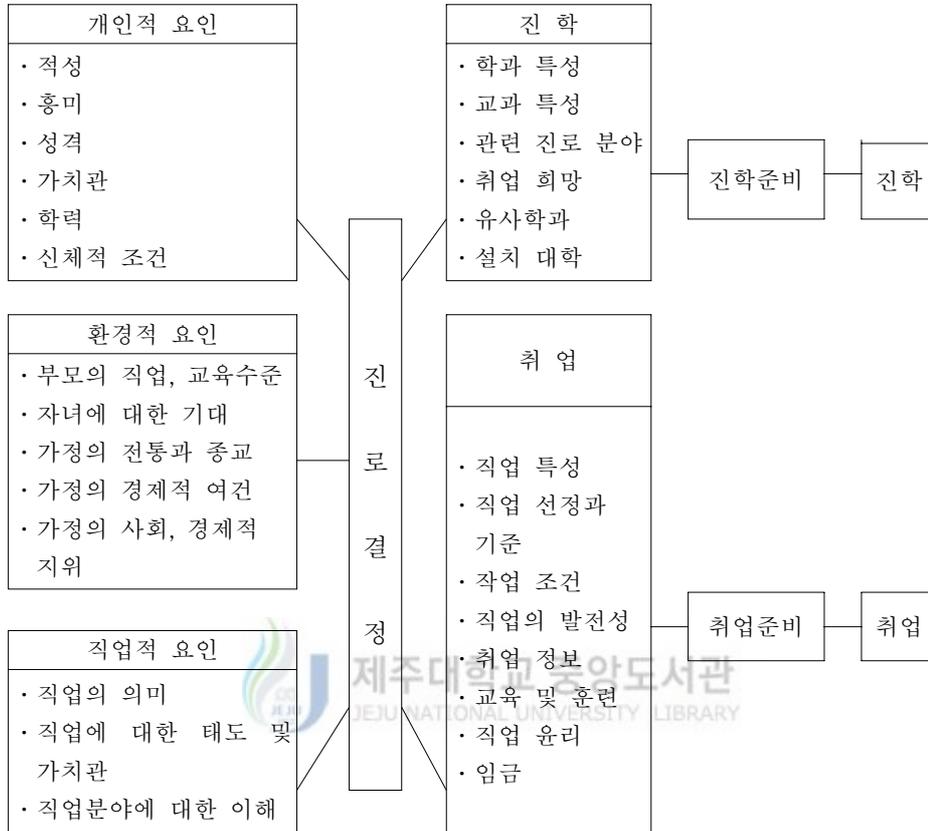
이것은 직접 직장에 나가 일을 해봄으로써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그 일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란 격언에 기초를 둔 것이다. 학교와 기업체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등학교 진로지도의 방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면하게 될 현실은 대학 입학(일반4년제 및 전문대학), 취업, 직업 훈련, 재수, 군입대, 결혼, 가업 계승, 창업, 무직(실업)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들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고민은 이미 진로 탐색 단계에 해당되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게 된다. 학생들은 일반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진학을 한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 내적·외적인 면의 변화에 의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많은 갈등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로 결정은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직업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즉,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결정은 생애 전체의 진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단계의 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결정하고 각각의 선택된 진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1> 진로지도 실천 모형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선택
------	------	------	------

자료: 장석민 외 4인(1988). 진학과 직업선택을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p.24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진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 위에서 진학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며,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은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위에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취업을 준비해 전체 생애의 진로계획에 있어서 한 단계의 결정이 무리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 결정이 합리

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인적인 정보와 이해를 토대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한 유의한 타인들의 모든 노력은 간섭과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유지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제공해주어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문 숭상과 기능 천시현상,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소득향상으로 진학위주의 교육이 더욱 고조되어 실업계 기피현상은 날로 심각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수준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목표에 부응하고 시, 도 수준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그 모형을 찾아 그 모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실업계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직업의 적성보다는 중학교 성적에 따라 진학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사회, 경제적 지위도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보통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으며 전문 교과는 더욱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입학했던 학생들마저도 주변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궁심이 저하되며, 일반학생들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이 산업구조 및 직업구

조의 변화와 기능 인력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현재 산업체 변화의 대응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교과운영이 지나치게 이론중심이거나 자격증 취득의 강조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현장 실습의 다양한 프로그램부족과 변형된 운영으로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이 미흡하고 현재의 직업교육훈련이 실제 직업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충청남도 교육과학원, 1999).

(2) 실업계 고등학생의 계속 교육

바람직한 직업 교육은 단순한 기능인 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급속히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적응 능력을 갖고 계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완성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 문화를 배양시키고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계속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연문희, 1993: 98).

진정한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평생 교육화와 계속 교육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지식은 그들이 이를 현장에 적용할 시기에는 이미 낡은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의 기본 유형은 평생학습의 개념화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재교육과 재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의 수립이 요망된다.

2. 진로교육

1) 진로교육의 개념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다. 그 이전까지는 특정한 직업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 왔다. 직업교육은 제한된 영역의 기능훈련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기능과 소양, 건전한 직업적 태도와 가치관 및 자아관 등을 위한 일반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로교육은 학문과 직업교육을 통합함은 물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진로 문제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교육의 관점으로 그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제주학생문화원, 2000: 15).

임두순(1999)은 진로교육을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개인에게 일생의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고, 직업 선택 및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갖고자 하는 직업이나 일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등을 총체적으로 연결·종합하려는 유기적인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석민(1999)은 진로교육을 사회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생산적 사회성원으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삶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복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전통적 교육과는 대조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규승(1997: 6)은 “진로교육이란 학교체제 내에서 일과 직업세계가 중심이 되는 의도·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진로를 인식·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선택·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을 말하며, 학생개인으로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택하며, 선택한 진로 분야

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급학교의 진학과 학과 및 계열 선택, 직업준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방면으로 지도하여 기존의 진학지도와 생활지도를 포함하고, 장래의 직업 선택을 돕는 직업지도까지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의 교육이다”라고 하였다.

김충기(1995: 26)는 “진로교육은 넓은 의미의 직업 교육이며, 직업 적성 교육이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인간교육이며 합리적인 직업준비 교육이다. 또한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를 포함하는 진로 지도의 상위 개념에 속한다. 즉 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흥미와 적성, 능력과 인성, 신체적 조건, 환경에 알맞은 진학 및 직업과정을 인식·탐색·준비과정을 통하여 진학 및 직업 선택을 현명하게 적용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개인의 장래 생활을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롭게 지도해 줌으로써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저마다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본다면 진로교육은 학교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 추진되어 진학 및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적성, 진단, 훈련 등을 내용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진학 및 직업을 선택하게 하여 장차 적응하고 발전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은 일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발달과정상 어느 특정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활동이 아니라 생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2) 진로교육의 목적

현대 산업사회의 전문화와 분업화에 발맞추어 현명한 진로선택으로 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과 인성 등에 알맞은 진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진로교육은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보람되고 성공적 직업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된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소질, 인성,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한 자아 인식 능력을 길러 주고, 현대 산업사회의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탐색과 체계적인 이해를 도우며,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건전한 태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은 과열 과외 및 재수생 해결의 문제는 물론 무직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최창율, 2000: 10).

둘째,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 전체의 직업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흥미, 능력, 적성,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님을 알고 지나친 기대나 편견을 버리고,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따뜻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이 필요하다(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 1999: 94).

즉, 진로교육의 목적은 변화와 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의 주체로서 현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표로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능력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삶과 일의 관계와 경제·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고용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소유한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경기도 진로교육연구회, 1998).

4) 외국의 진로교육¹⁾

(1) 미국의 진로교육

미국의 학교교육제도는 유치원교육이 1년에서 3년까지이고, 6년 과정이 초등교육, 6년 과정이 중등교육, 그리고 4년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각 주별 특성상의 예외도 존재한다.

미국의 전기중등교육(7-9학년 과정)단계의 교육과정도 각 주별·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만을 구별해 보면, 대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생활기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직업준비에 대한 모듈(Module)을 매년 한 학기 동안의 과목표본으로 제공하고, 현행의 실용기술(Practical arts)과목을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다.

미국의 후기중등학교(10-12학년 과정)단계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대다수이며(학생의 약90%), 그 가운데에서 종합제 고등학교(comprehensive public high school)가 주류이다. 종합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문적-이론적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용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고 있다.

종합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준비과정, 일반과정, 직업과정, 상업과정이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본인과 상담·진로지도교사의 관찰과 판단이 과정 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로상담교사는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학생의 상담업무에만 전념하며, 학생의 능력, 흥미, 관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조언하고 지도한다. 이는 대학 진학반이나 직업반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진로선택·결정을 내리기 위한 카운슬링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 이 내용은 이상오(1997: 43~47), “외국의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진로 판단 권고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진로지도교사는 학생 개인의 ‘진로상담기록부’를 누적적으로 기록하며 진로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하여금 진로과정기록(경험 및 활동 요약), 진로계획, 교육계획 등을 스스로 기록, 제출하게 하고 ‘개인 진로 계획기록부(Individual career plan folder)’를 본인, 부모 그리고 진로상담교사가 함께 작성해 나간다.

(2) 영국의 진로교육

영국의 기본학제는 5-11세 아동을 위한 초등교육 단계와 11-18세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 단계 그리고 18세 이상의 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단계로 구분된다. 초등교육단계는 일반적으로 만 5세에 입학하는 유아학교와 2년간의 과정을 끝내고 입학하는 주니어 스쿨로 나뉜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반드시 11세에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과 학생·부모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제1학교(first school)에서 바로 중급학교(middle school)로 이어지는 교육기관도 있다. 196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는 오늘날 영국 학생들의 대다수가 다닐 정도로 학교제도의 혁신을 몰고 왔다. 여기서 주로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효과를 보고 있는 편이다.

중등교육의 장으로서 문법학교, 현대학교 그리고 종합학교가 있다.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등 교육과정의 운영 특징은 모든 학생의 연령, 능력, 태도, 취향, 재능, 잠재력 신장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진로탐색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 중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으로서 특히 종합학교에서 소위 직업반인 제 6학급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일반자격시험제도(CS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의 도입 실시는 새로운 진로교육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밖에도 진로교육의 활성화가 종합제 학교의 설립·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11세에 시험에 의해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던 종래의 조기 진로결정교육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불합리성과 폐해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를 수료한 모든 학생을 동일 학교에 수용하여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행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영국의 종합학교 설립 목적이라 할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전·후기 중등교육이 통합되어 있으나, 초기 2~3년간은 대체로 기초교과로 구성된 공통필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학생의 능력과 적성이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또한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과정(대학진학계열)이나 CSE과정(직업교육계열)을 선택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자신의 적성과 학업성적, 학부모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학생의 계열 이동이 계속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영국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폭넓은 계속교육의 기회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자신이 그의 장단점과 흥미·적성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또한 직업선택의 신중성을 강조하여 학생 스스로 장차 직업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실제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상황 극복의 실습을 구체화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995: 96).

(3) 독일의 진로교육

미국과 영국이 교육제도상으로 보다는 학교교육 운영상 자치적으로 진로교육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불란서의 폴레즈 같은 제도상의 진로지도단계가 법제도화 되어 있다.

즉, 교육-학습현장에서의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에 산재하여 설치되어 있던 촉진단계(forderstufe), 인문계 김나지움(gymnasium)과 실과계 레알슐레(realschule)에 설치되어 있던 진입단계(eingangsstufe) 그리고 다양한 중간학습단계(mittelbau)를 종합하는 단계학교(stufenschule)로서의 ‘오리엔테이션 과정’(2년 과정: orientierungsstufe)을 도입 실시한다. 이는 기초학교(grundschule) 4년을 졸업하면 바로 학생들이 공통으로 진학하는 일종의 중간 학교가 된다. 이로써 단계학교를 중심으로 과거의 혈통 대신 ‘적성과 재능’(begabung)을 바탕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중등과정인 김나지움(5-13학년), 3차 산업의 서비스업 계통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과학교(realschule : 5-10학년), 또는 공업-기술계 2차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하여 장래에 각종 직업학교(berufsschule)로 진학하려는 의도로 직업 예비 학교인 하우스프트슐레(hauptschule: 5-9학년)에 진학하려는 학생 개인의 희망은 이 진로지도단계를 거치면서 결정된다.

즉, 이 과정에서는 학생의 장래 진로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도적으로 상급진학학교와 철저히 독립되어서 학생의 개인차에 입각한 적성과 재능검사가 실시되고 이에 근거하는 진로지도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진학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본인 그리고 학부모 3인의 의견교환과 협동적 결정이 중요한데, 본인과 학부모의 의사가 학교의 견해보다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의 진로결정을 위해 학생 개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학부모와 본인이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이로써 학생의 최종 진로결정이 이루어진다.

1968년부터는 종합학교(gesamtschule)가 교육개혁학교의 모델학교로서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지금은 독일에서 반수 이상의 학생이 이곳을 다닌다. 이 학교는 인문교육과 진로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실시해 보자는 의도에서 설치되어 있다. 종합학교의 학생들

은 장래의 진로선택을 위해서 대학 진학반인 인문계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직업반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즉 계열간 학생이동이 가능한데, 이 학교 내에서는 산학협동체제 속에서의 진로교육이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문계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서의 진로 교육은 - 독일인에게 대학 진학은 우리의 경우처럼 일생의 중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 진학지도보다 또 한번의 진로교육을 하게 된다. 즉 1970년대 초부터 김나지움의 상급반에 ‘직업반’이 생겨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즉, 김나지움의 상급반에 직업반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재능을 파악하여 다시 한 번 직업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업학교를 졸업할 경우에 나중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콜렉(kolleg)이라는 제3의 교육계열에 진학하여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물론 이 자격증은 김나지움 졸업학생들이 취득하는 종합대학입학자격증인 아비투어(abitur)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대학입학자격증이다. 이는 hochschulreife라고 불리는데, 이로써 학생들은 각종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 진학하여 연학(研學)을 계속할 수 있다.

(4) 일본의 진로교육²⁾

일본의 학제는 1947년의 교육법에 의해 전전(戰前)의 복선형 학제를 근본으로 개혁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6-3-3-4의 미국식 학제를 모형으로 한 단선형 학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84년에 수상의 자문기구로 발족된 ‘임시교육 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교육개혁은 개성중시의 원칙, 평생학습체제로의 이행,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세 가지 기본 입장을 내세웠다. 그

2) 이 내용은 김충기(1995: 26),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생학습체제의 정비,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개혁, 초등교육의 충실과 개혁, 정보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혁,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개혁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게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체로 도덕시간 또는 H·R 시간에 주 1시간 정도를 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있다. 진학지도는 주로 담임교사가 맡고, 취업지도는 상담교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등학교의 선택은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진다. 진로상담기록부는 별도로 없으나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진로지도양식은 상담교사가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역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나 좀 더 체계적이며 일부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지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능력과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진로지도 주임교사나 취업지도 교사가 진로지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이나 대학의 선택과 전공 선택은 우리나라와 같이 담임교사와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고교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주요 제안 사항을 보면, 개성이나 재능을 발굴·선발하기 위해 다원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 수험 기회를 복수화하며, 중·고교에서 진로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고, 입학자의 선발 방법이나 척도, 출제 내용을 조사·연구한다.

Ⅲ.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로지도 방향의 재정립 기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필요한 문항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분석·종합하여 작성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업계 1개교, 상업계 2개교, 특성화고 2개교 등 5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교사 200명, 학생 600명에게 2004년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배부하였으며, 이 중 교사 182(91%)부, 학생 573(95.5%)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한쪽에 치우친 응답이나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불성실한 응답자 교사 5부, 학생 27부를 제외한 교사177부와 학생 546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Ⅲ-1> 및 <표Ⅲ-2>와 같다.

<표Ⅲ-1> 교사의 일반적 특성

개인배경변인	집 단	사례수	백분비(%)
성 별	남자	102	57.6
	여자	75	42.4
경력별	5년이하	34	19.2
	6-10년	7	4.0
	11-15년	34	19.2
	16-20년	34	19.2
	21-25년	32	18.1
	26년이상	36	20.3
학교별	공업계	40	22.6
	상업계	67	37.9
	특성화고	70	39.5
교과별	진공교과	98	55.4
	인문교과	79	44.6
담임유무	담임	97	54.8
	비담임	80	45.2
계		177	100.0



<표Ⅲ-2> 학생의 일반적 특성

개인배경변인	집 단	사례수	백분비(%)
성 별	남자	287	52.6
	여자	259	47.4
학년별	1학년	29	5.3
	2학년	88	16.1
	3학년	429	78.6
학교별	공업계	197	36.1
	상업계	214	39.2
	특성화고	135	24.7
지역별	제주시	216	39.6
	서귀포시	59	10.8
	북제주군	271	49.6
계		546	100.0

2. 측정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문항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분석·종합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표Ⅲ-3>과 같이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항,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및 만족도에 대한 4문항, 셋째, 진로희망에 대한 7문항, 넷째,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4문항, 다섯째, 진로지도의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Ⅲ-3>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하 위 변 인	문 항 내 용	문항번호	
		학생	교사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동기 및 만족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2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	3	
	실업계고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3-1	
진로희망	진로 변경 의사	5	
	직업 선택시 고려할 사항	9	8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10	9
	장래 직업	12	
	졸업 후 진로	7	
	대학 진학 희망 이유	7-1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7-2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중학교에서 실업계고교에 대한 인식	4	
	교과 학습의 중요도	6	
	전공분야의 직업	11	10
	기능인에 대한 평가	21	12
진로지도의 현황과 만족도	졸업 후 진로 결정은 누구와 하나	8	
	학교에서 진로상담 대상자	13	1
	상담 내용	14	2
	진로지도 만족도	15	3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 횟수	16	4
	진로상담 시간	17,18	5,6
	진로에 대한 정보	19	7
	대학 진학반의 필요성	20	11
	계	24	12

3. 자료의 처리

- 1) 표본의 배경변인별 특징을 빈도 분석하여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 2)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및 만족도, 진로희망,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진로지도의 현황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배경특성(성별,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에 따라 χ^2 통계치를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교사들이 보는 학생들의 진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진로지도의 현황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배경특성(성별, 경력별, 학교별, 교과별, 담임유무별)에 따라 χ^2 통계치를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이상의 모든 자료 처리 과정은 SPSS 10.0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및 만족도

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1>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중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라는 반응이 69.2%로서 가장 높으며,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10.8%),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서’(9.9%), ‘빠른 취업을 위해서’(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성적에 맞춰 입학한 학생들이 많았고,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 또는 취업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라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80.3%로 남학생 59.2%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IV-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단위:명(%)	
구분	집단	N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	중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	빠른 취업을 위해서	대학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서	df	χ^2
성별	남	287	41(14.3)	170(59.2)	20(7.0)	14(4.9)	42(14.6)	4	31.79***
	여	259	18(6.9)	208(80.3)	10(3.9)	11(4.2)	12(4.6)		
학년별	1학년	29	3(10.3)	15(51.7)	-	6(20.7)	5(17.2)	8	45.59***
	2학년	88	7(11.9)	50(56.8)	6(6.8)	5(5.7)	20(22.7)		
	3학년	429	49(10.8)	313(73.0)	24(5.6)	14(3.4)	29(6.8)		
학교별	공업계	197	25(12.7)	118(59.9)	15(7.6)	11(5.6)	28(14.2)	8	40.50***
	상업계	214	19(8.9)	177(82.7)	9(4.2)	5(2.3)	4(1.9)		
	특성화	135	15(11.1)	83(61.5)	6(4.4)	9(6.7)	22(16.3)		
지역별	제주시	216	198(8.8)	162(75.0)	12(5.6)	4(1.9)	19(8.8)	8	23.30**
	서귀포	59	10(16.9)	30(50.8)	2(3.4)	8(13.6)	9(15.3)		
	북제주	271	30(11.1)	186(68.8)	16(5.9)	13(4.8)	26(9.6)		
전체		546	59(10.8)	378(69.2)	30(5.5)	25(4.6)	54(9.9)		

** $p < .01$, *** $p < .001$

학년별로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라는 반응의 경우 3학년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1학년이 20.7%로 3학년 3.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별로는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 고등학교가 82.7%로 가장 높고,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서’는 특성화고와 공업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지역별로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라는 반응의 경우 제주시지역 학생들이 75.0%로 가장 높은 반면에, 서귀포시지역 학생들은 ‘대학진학 및 장래성이 있어서’라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2)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을 분석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인’이 35%로 가장 높으며, ‘부모, 형제’(23.3%), ‘선생님’(23.1%), ‘친구, 선배’(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이 결정과 ‘부모, 형제’의 조언이 진학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

<표IV-2>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구분	집단	N	본인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선배	기타	df	χ^2
성별	남	287	105(36.6)	60(20.9)	68(23.7)	34(23.7)	20(7.0)	4	3.70
	여	259	86(33.2)	67(25.9)	58(22.4)	36(13.9)	12(4.6)		
학년 별	1학년	29	6(20.7)	5(17.2)	12(41.4)	3(10.3)	3(10.3)	8	10.31
	2학년	88	34(38.6)	17(19.3)	17(19.3)	14(15.9)	6(6.8)		
	3학년	429	151(27.7)	105(24.5)	97(22.6)	53(12.4)	24(5.4)		
학교 별	공업계	197	64(32.5)	51(25.9)	40(20.3)	27(13.7)	15((7.6)	8	13.07
	상업계	214	70(32.7)	57(26.6)	49(22.9)	28(13.1)	10(4.7)		
	특성화	135	57(35.0)	19(14.1)	37(27.4)	15(11.1)	7(5.2)		
지역 별	제주시	216	86(39.8)	54(25.0)	41(19.0)	27(12.5)	8(3.7)	8	12.97
	서귀포	59	22(37.3)	8(13.6)	19(32.2)	6(10.2)	4(6.8)		
	북제주	271	83(30.6)	65(24.0)	66(24.4)	37(13.7)	20(7.4)		
전체		546	191(35.0)	127(23.3)	126(23.1)	70(12.8)	32(5.9)		

사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

재학중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40.8%로써 가장 높으며, ‘대체로 만족한다’(33.7%), ‘대단히 만족한다’(10.3%), ‘매우 불만족한다’(8.4%), ‘불만족한다’(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반응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성적에 맞춰서 입학한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학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현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V-3>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만족도

							단위:명(%)		
구분	집단	N	대단히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df	χ^2
성별	남	287	38(13.2)	97(33.8)	112(39.0)	12(4.2)	28(9.8)	4	13.03*
	여	259	18(6.9)	87(33.6)	111(42.9)	25(9.7)	18(6.9)		
학년별	1학년	29	5(17.2)	12(41.4)	9(31.0)	2(6.9)	1(3.4)	8	13.93
	2학년	88	11(12.5)	38(43.2)	33(37.5)	1(1.1)	5(5.7)		
	3학년	429	40(9.3)	134(31.2)	181(42.2)	34(7.9)	40(9.3)		
학교별	공업계	197	26(13.2)	68(34.5)	81(41.1)	5(2.5)	17(8.6)	8	31.79***
	상업계	214	11(5.1)	60(28.0)	96(44.9)	25(11.7)	22(10.3)		
	특성화	135	19(14.1)	56(41.5)	46(34.1)	7(5.2)	7(5.2)		
지역별	제주시	216	21(9.7)	90(41.7)	74(34.3)	21(9.7)	10(4.6)	8	31.31***
	서귀포	59	11(18.6)	19(32.2)	25(42.4)	2(3.4)	2(3.4)		
	북제주	271	24(8.9)	75(27.7)	124(45.8)	14(5.2)	34(12.5)		
전체		546	56(10.3)	184(33.7)	223(40.8)	37(6.8)	46(8.4)		

*p<.05, ***p<.0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긍정적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47.0%로 여학생 40.5%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교별로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이 55.6%로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상업계는 33.1%로 낮은 반응을 보여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

은 것은 현실에 맞는 학과 개편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긍정적 반응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높고 북제주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진로희망

1) 진로 변경 의사

학생들이 진로를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IV-4>에 제시되어 있다. <표IV-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진로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 44.9%로 가장 높으며, ‘전공을 바꾸고 싶다’(23.3%),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17.2%), ‘인문계로 진학하겠다’(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학과에 만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변경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진로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52.6%로서 여학생 36.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인문계로 진학하

<표IV-4> 진로 변경 의사

구분	집단	N	단위:명(%)				df	χ^2
			인문계로 진학 하겠다	전공을 바꾸고 싶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	진로를 바꿀 생각이 없다		
성 별	남	287	25(8.7)	72(25.1)	39(13.6)	151(52.6)	3	28.14***
	여	259	55(21.2)	55(21.2)	55(21.2)	94(36.4)		
학 년 별	1학년	29	2(6.9)	3(10.3)	7(24.1)	17(58.6)	6	10.35
	2학년	88	7(8.0)	24(27.3)	14(15.9)	43(48.9)		
	3학년	429	71(16.6)	100(23.3)	73(17.0)	185(43.1)		
학 교 별	공업계	197	17(8.6)	45(22.8)	32(16.2)	103(52.3)	6	37.71***
	상업계	214	49(22.9)	40(18.7)	49(22.9)	76(35.5)		
	특성화	135	14(10.4)	42(31.1)	13(9.6)	66(48.9)		
지 역 별	제주시	216	52(24.1)	53(24.5)	25(11.6)	86(39.8)	6	38.98***
	서귀포	59	3(5.1)	7(11.9)	11(18.6)	38(64.4)		
	북제주	271	25(9.2)	67(24.7)	58(21.4)	121(44.6)		
전체		546	80(14.7)	127(23.3)	94(17.2)	245(44.9)		

***p<.001

겠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이와 같은 여학생들이 인문계 선호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전공교과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별로 ‘진로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 52.3%로 높은 반면에, 상업계는 35.5%로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진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업계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많아 인문계 진학과 다른 학교로 진학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지역별로는 ‘진로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반응의 경우 서귀포시가 64.4%로 진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시 지역은 인문계로 진학하겠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직업 선택시 고려할 사항

학생들이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Ⅳ-5>에 제시되어 있다. <표Ⅳ-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신의 적성, 능력’이라는 반응이 63.9%로 가장 높으며, ‘직업의 장래성’(20.0%), ‘임금수준’(10.4%), ‘전공 관련’(4.4%)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래 직업으로 임금수준이나 직업의 장래성보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매우 바람직한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자신의 적성, 능력’이라는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64.8%, 여학생 62.9%로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직업의 장래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교별, 학년별, 지역별로 ‘자신의 적성, 능력’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모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자신의 적성,능력	임금수준	직업의 장래성	전공관련여 부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	df	χ^2
성 별	남	287	186(64.8)	28(9.8)	50(17.4)	19(6.6)	4(1.4)	4	9.86*
	여	259	163(62.9)	29(11.2)	59(22.8)	5(1.9)	2(0.8)		
학 년 별	1학년	29	22(75.9)	2(6.9)	5(17.2)	-	-	8	4.30
	2학년	88	56(63.6)	8(9.1)	17(19.3)	6(6.8)	1(1.1)		
	3학년	429	271(63.2)	47(11.0)	88(20.5)	18(4.2)	5(1.2)		
학 교 별	공업계	197	127(64.5)	18(9.1)	39(19.8)	11(5.6)	2(1.0)	8	2.11
	상업계	214	134(62.6)	25(11.7)	45(21.0)	8(3.7)	2(9.0)		
	특성화	135	88(65.2)	14(10.4)	26(19.3)	5(3.7)	2(1.5)		
지 역 별	제주시	216	141(65.3)	23(10.6)	43(19.9)	7(3.2)	2(0.9)	8	8.55
	서귀포	59	43(72.9)	4(6.8)	12(20.3)	-	-		
	북제주	271	165(60.9)	30(11.1)	55(20.3)	17(6.3)	4(1.5)		
전체		546	349(63.9)	57(10.4)	109(20.0)	24(4.4)	6(1.1)		

*p<.05

교사들이 진로지도시 학생들에게 장래 직업선택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IV-6>에 제시되어 있다. <표IV-6>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적성, 능력’이라는 반응이 69.5%로 가장 높으며, ‘직업의 장래성’(22.6%), ‘전공관련’(5.6%), ‘임금수준(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도 적성과 능력을 우선하여 학생들에게 장래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 학교별, 교과별, 담임 유무별로 모두 ‘자신의 적성, 능력’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 보면, ‘자신의 적성, 능력’이라는 반응의 경우 ‘6-10년’ 집단이 85.7%로 가장 많고, ‘26년 이상’ 집단이 80.6%, ‘5년 이하’ 집단의 경우도 79.4%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11-15년’ 집단이 52.9%, ‘21-25’년 집단이 59.4%로 타 집단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직업의 장래성’을 직업 선택시 고려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표IV-6>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교사)

단위:명(%)

구분	집단	N	자신의 적성,능력	임금수준	직업의 장래성	전공관련여부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	df	χ^2
성 별	남	102	69(67.6)	2(2.0)	22(21.6)	9(8.8)	-	3	4.61
	여	75	54(72.0)	2(2.7)	18(24.0)	1(1.3)			
경 력 별	5년이하	34	27(79.4)	-	6(17.6)	1(2.9)	-	15	17.57
	6-10년	7	6(85.7)	-	1(14.3)	-			
	11-15년	34	18(52.9)	1(2.9)	13(38.2)	2(5.9)			
	16-20년	34	24(70.6)	1(2.9)	8(23.5)	1(2.9)			
	21-25년	32	19(59.4)	1(3.1)	10(31.3)	2(6.3)			
	26년이상	36	29(80.6)	1(2.8)	2(5.6)	4(11.1)			
학 교 별	공업계	40	27(67.5)	-	10(25.0)	3(7.5)	-	6	4.14
	상업계	67	48(71.6)	1(1.5)	16(23.9)	2(3.0)			
	특성화	70	48(68.6)	3(4.3)	14(20.0)	5(7.1)			
교 과	전공교과	98	69(70.4)	2(2.0)	24(24.5)	3(3.1)	-	3	3.02
	과 인문교과	79	54(68.4)	2(2.5)	16(20.3)	7(8.9)			
답 임	답임	97	70(72.2)	2(2.1)	20(20.6)	5(5.2)	-	3	0.72
	비답임	80	53(66.3)	2(2.5)	20(25.0)	5(6.3)			
전체		177	123(69.5)	4(2.3)	40(22.6)	10(5.6)			



3)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학생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IV-7>에 제시되어 있다. <표IV-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실력'이라는 반응이 58.8%로 가장 높으며, '기술'(29.3%), '학벌'(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전한 의식을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실력'이라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66.4%로서 남학생 51.9%보다 많았으나, '기술'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남학생이 36.6%로 여학생 21.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학생은 실력이 남학생은 기술이 직업을 갖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학년별로 '실력'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3학년'이 60.6%로 '2학년' 53.4%, '1학년' 48.3%보다 상대적으로 높

<표IV-7>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학벌	기술	배경	실력	외모	df	χ^2
성별	남	287	10(3.5)	105(36.6)	20(7.0)	149(51.9)	3(1.0)	5	30.96***
	여	259	23(8.9)	55(21.2)	5(1.9)	172(66.4)	4(1.5)		
학년별	1학년	29	2(6.8)	11(37.9)	-	14(48.3)	2(6.9)	10	22.61*
	2학년	88	5(5.7)	31(35.2)	3(3.4)	47(53.4)	2(2.3)		
	3학년	429	26(6.0)	118(27.5)	22(5.1)	260(60.6)	3(0.7)		
학교별	공업계	197	8(4.1)	69(35.0)	15(7.6)	104(52.8)	1(0.5)	10	29.26**
	상업계	214	14(6.5)	47(22.0)	6(2.8)	145(67.8)	2(0.9)		
	특성화	135	11(8.2)	44(32.6)	4(3.0)	72(53.3)	4(3.0)		
지역별	제주시	216	21(9.8)	46(21.3)	4(1.9)	143(66.2)	2(0.9)	10	38.91***
	서귀포	59	2(3.4)	27(45.8)	1(1.7)	27(45.8)	2(3.4)		
	북제주	271	10(3.7)	87(32.1)	20(7.4)	151(55.7)	3(1.1)		
전체		546	33(6.1)	160(29.3)	25(4.6)	321(58.8)	7(1.2%)		

*p<.05, **p<.01, ***p<.001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학교별로 ‘실력’이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가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지역별로 ‘실력’이라는 반응의 경우 제주시가 66.2%로 가장 높았으나,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은 ‘기술’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교사들이 진로지도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IV-8>에 제시되어 있다. <표IV-8>에 제시된 것과 같이 ‘기술’이라는 반응이 81.9%로서 가장 높으며, ‘실력’(15.8%), ‘배경’(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다르게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감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경력별로 ‘기술’이라는 반응의 경우 ‘5년 이하’ 집단이 94.1%, ‘11-15년’과 ‘16-20년’ 집단이 85.3%, ‘21-25년’ 집단도 81.3%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6년 이상’ 집단의 경우는 ‘실력’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교과별로 ‘기술’이라는 반응의 경우 인문교과 교사가 89.9%로서 전공교과

<표 IV-8>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교사)

단위:명(%)

구분	집단	N	학벌	기술	배경	실력	외모	df	χ^2
성별	남	102	-	80(78.4)	4(3.9)	18(17.6)	-	2	3.80
	여	75	-	65(86.7)	-	10(13.3)	-		
경력별	5년이하	34	-	32(94.1)	-	2(5.9)	-	10	19.83*
	6-10년	7	-	7(100)	-	-	-		
	11-15년	34	-	29(85.3)	-	5(14.7)	-		
	16-20년	34	-	29(85.3)	-	5(14.7)	-		
	21-25년	32	-	26(81.3)	2(6.3)	4(12.5)	-		
	26년이상	36	-	22(61.1)	2(5.6)	12(33.3)	-		
학교별	공업계	40	-	31(77.5)	1(2.5)	8(20.0)	-	4	3.78
	상업계	67	-	58(86.6)	-	9(13.4)	-		
	특성화	70	-	56(80.0)	3(4.3)	11(15.7)	-		
교과	전공교과	98	-	74(75.5)	4(4.1)	20(20.4)	-	2	7.24*
	인문교과	79	-	71(89.9)	-	8(10.1)	-		
담임	담임	97	-	84(86.6)	2(2.1)	11(11.3)	-	2	3.33
	비담임	80	-	61(76.3)	2(2.5)	17(21.3)	-		
전체		177	-	145(81.9)	4(2.3)	28(15.8)	-		

*p<.05

교사 75.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공교과 교사들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 교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성별로 ‘기술’이라는 반응의 경우 여교사가 남자교사 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고, 학교별로는 ‘실력’이라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 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담임은 ‘기술’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비담임은 ‘실력’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반응이 많기는 했으나 담임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들의 원하는 장래의 직업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하는 장래의 직업을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IV-9>에 제시되어 있다. <표IV-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문기술직’이라는 반응이 31.7%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직’(17.6%), ‘사무직’(15.4%), ‘행정관리직’(11.9%), ‘숙련직’(10.4%), ‘생산직’(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기

술직과 서비스직 등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아 올바른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IV-9> 학생들의 원하는 장래의 직업

단위:명(%)

구분	집단	N	사무직	행정, 관리직	숙련직	서비스직	생산직	판매직	전문 기술직	농림, 축산업	df	χ^2
성별	남	287	46 (16.0)	35 (12.2)	29 (10.1)	47 (16.4)	43 (16.4)	12 (4.2)	69 (24.0)	6 (2.1)	7	47.33***
	여	259	38 (14.7)	30 (11.6)	28 (10.8)	49 (18.9)	4 (1.5)	6 (2.3)	104 (40.2)	-		
학년별	1학년	29	3 (10.3)	2 (6.9)	2 (6.9)	3 (10.3)	5 (17.2)	1 (3.4)	11 (37.9)	2 (6.9)	14	37.81**
	2학년	88	9 (10.2)	7 (8.0)	9 (10.2)	12 (13.6)	17 (19.3)	2 (2.3)	30 (34.1)	2 (2.3)		
	3학년	429	72 (16.8)	56 (13.1)	46 (10.7)	81 (18.9)	25 (5.8)	15 (3.5)	132 (30.8)	2 (0.5)		
학교별	공업계	197	38 (19.3)	26 (13.2)	23 (11.7)	28 (14.2)	31 (15.7)	7 (3.6)	43 (21.8)	1 (0.5)	14	57.37***
	상업계	214	30 (14.0)	30 (14.0)	21 (9.8)	41 (19.2)	3 (1.4)	9 (4.2)	80 (37.4)	-		
	특성화	135	16 (11.9)	9 (6.7)	13 (9.6)	27 (20.0)	13 (9.6)	2 (1.5)	50 (37.0)	5 (3.7)		
지역별	제주시	216	29 (13.4)	27 (12.5)	18 (8.3)	47 (21.8)	5 (2.3)	6 (2.3)	82 (38.0)	3 (1.4)	14	50.94***
	서귀포	59	7 (11.9)	5 (8.5)	13 (22.0)	3 (5.1)	12 (20.3)	1 (1.7)	16 (27.1)	2 (3.4)		
	북제주	271	48 (17.7)	33 (12.2)	26 (9.6)	46 (17.0)	30 (11.1)	12 (4.4)	75 (27.7)	1 (0.4)		
전체		546	84 (15.4)	65 (11.9)	57 (10.4)	96 (17.6)	47 (8.6)	18 (3.3)	173 (31.7)	6 (1.1)		

p<.01, *p<.0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전문기술직’이라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40.2%로 남학생 24.0%보다 높으나, ‘생산직’의 경우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여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런 결과로 볼 때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교사, 연예인 등 인기 직종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전문기술직’이라는 반응의 경우 모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직’이라는 반응의 경우 1학년이 17.2%, 2학년이 19.3%로 3학년 5.8%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학교별로 ‘전문기술직’이라는 반응은 상업계가 37.4%, 특성화고가 37.0%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생산직’의 경우는 공업계가 15.7%로 상업계 1.4%, 특성화고 9.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여 공업계 학과에 따른 장래 직업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지역별로는 ‘전문기술직’이라는 반응의 경우 제주도 학생들이 38.0%로 서귀포시 27.1%, 북제주 27.7%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숙련직’과 ‘생산직’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서귀포시지역 학생들이, ‘서비스직’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5)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고등학교 졸업후의 진로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표IV-10>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대학진학’이라는 반응이 76.2%로 가장 높으며, ‘잘 모르겠다’(11.2%), ‘취업’(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74.6%이고 여학생 78.0%로서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대학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3학년’이 78.6%, ‘2학년’이 71.6%로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대학진학 비율이 증가는 학력 위주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학년’은 취업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학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제주도

<표IV-10>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계획

단위:명(%)

구분	집단	N	대학진학	취업	사업	잘모르겠다	기타	df	χ^2
성별	남	287	214(74.6)	25(8.7)	8(2.8)	30(2.8)	10(3.5)	4	7.31
	여	259	202(78.0)	21(8.1)	1(0.4)	31(12.0)	4(1.5)		
학년별	1학년	29	16(55.2)	5(17.2)	3(10.3)	4(13.8)	1(3.4)	8	23.79**
	2학년	88	63(71.6)	8(9.1)	1(1.1)	15(17.0)	1(1.1)		
	3학년	429	337(78.6)	33(7.7)	5(1.2)	42(9.8)	12(2.8)		
학종별	공업계	197	144(73.1)	16(8.1)	5(2.5)	24(12.2)	8(4.1)	8	8.38
	상업계	214	173(80.8)	16(7.5)	1(0.5)	21(9.8)	3(1.4)		
	특성화	135	99(73.3)	14(10.4)	3(2.2)	16(11.9)	3(2.2)		
지역별	제주시	216	177(81.9)	14(6.5)	-	21(9.7)	4(1.9)	8	19.80*
	서귀포	59	40(67.8)	8(13.6)	4(6.8)	6(10.2)	1(1.7)		
	북제주	271	199(73.4)	24(8.9)	5(1.8)	34(12.5)	9(3.3)		
전체		546	416(76.2)	46(8.4)	9(1.6)	61(11.2)	14(2.6)		

*p<.05, **p<.01

학생들이 81.9%, 북제주 학생들이 73.4%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귀포지역 학생들은 취업을 하겠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6)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학생들에게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1>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는 반응이 64.4%로서 가장 높으며, ‘높은 학문을 쌓기 위해’(19.9%), ‘학벌이 중요하므로’(8.4%), ‘부모와 주위의 권유로’(5.0%)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문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69.1%로 남학생 59.9%보다 많고, ‘높은 학문을 쌓기 위해’라는 반응의 경우는 남학생이 23.8%로 여학생 15.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IV-1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명(%)

구분	집단	N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학벌이 중요하므로	높은 학문을 쌓기 위해	부모와 주위의 권유로	다른 학생들이 진학하므로	df	χ^2
성별	남	214	128(59.9)	16(7.5)	51(23.8)	13(6.0)	6(2.8)	5	7.94
	여	204	141(69.1)	19(9.3)	32(15.7)	8(3.9)	4(2.0)		
학년별	1학년	17	9(52.9)	1(5.9)	7(41.2)	-	-	10	14.85
	2학년	63	42(66.7)	4(6.4)	14(22.2)	3(4.8)	-		
	3학년	338	218(64.5)	30(8.9)	62(18.3)	18(5.3)	10(3.0)		
학교별	공업계	144	91(63.2)	13(9.0)	30(20.8)	8(5.6)	2(1.4)	10	23.29*
	상업계	173	123(71.1)	15(8.7)	20(11.6)	9(5.2)	6(3.5)		
	특성화	101	55(54.5)	7(6.9)	33(32.7)	4(4.0)	2(2.0)		
지역별	제주시	178	112(62.9)	16(9.0)	39(21.9)	7(3.9)	4(2.2)	10	20.46*
	서귀포	41	21(51.2)	4(9.8)	15(36.6)	1(2.4)	-		
	북제주	199	136(68.3)	15(7.5)	29(14.6)	13(6.5)	6(3.0)		
전체		418	269(64.4)	35(8.4)	83(19.9)	21(5.0)	10(2.4)		

*p<.05

학교별로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가 71.1%로 공업계 63.2%, 특성화고 54.5%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상업계 학생들이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것은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전공을 바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성별로 여학생이 많아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학문을 쌓기 위해’라는 반응의 경우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32.7%로 상업계 11.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전공학과에 대한 연속적인 학문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지역별로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는 반응의 경우 북제주가 68.3%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높은 학문을 쌓기 위해’라는 반응의 경우는 서귀포시가 36.6%로 제주시 21.9%, 북제주 1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3.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1) 중학교에서 실업계고교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 횟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 학과에 대하여 진로지도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IV-12>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진로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회’(27.5%), ‘3-4회’(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2>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 횟수 단위:명(%)

구분	집단	N	없다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df	χ^2
성별	남	287	188(65.5)	86(30.0)	8(2.8)	2(0.7)	3(1.0)	4	4.79
	여	259	188(68.3)	64(24.7)	15(5.8)	1(0.4)	2(0.8)		
학년별	1학년	29	15(51.7)	13(44.8)	-	1(3.4)	-	8	14.36
	2학년	88	56(63.6)	24(27.3)	7(8.0)	-	1(1.1)		
	3학년	429	294(68.5)	113(26.3)	16(3.7)	2(0.5)	4(0.9)		
학교별	공업계	197	120(60.9)	70(35.5)	4(2.0)	1(0.5)	2(1.0)	8	16.94*
	상업계	214	159(74.3)	42(19.6)	10(4.7)	1(0.5)	2(0.9)		
	특성화	135	86(63.7)	38(28.1)	9(6.7)	1(0.7)	1(0.7)		
지역별	제주시	216	153(70.8)	47(21.8)	12(5.6)	1(0.5)	3(1.4)	8	20.41**
	서귀포	59	28(47.5)	28(47.5)	1(1.7)	1(1.7)	1(1.7)		
	북제주	271	184(67.9)	75(27.7)	10(3.7)	1(0.4)	1(0.4)		
전체		546	365(66.8)	150(27.5)	23(4.2)	3(0.5)	5(0.9)		

*p<.05, **p<.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진로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65.5%, 여학생이 68.3%로 남녀 모두 고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는 ‘진로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 학생들이 74.3%로 공업계 60.9%, 특성화고63.7%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만 중점을 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지역별로 ‘진로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반응의 경우

제주시 학생이 70.8%, 북제주 학생이 67.9%로 많은 학생들이 실업계고교의 학과에 대한 정보도 없이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2회'라는 반응의 경우는 서귀포시가 4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중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과 활용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교과목이 사회생활에서 필요 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사회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3>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는 반응이 34.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다'(33.5%),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17.8%),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7.3%), '도움이 안될 것이다'(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사회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3> 교과목이 사회생활에서 필요정도

								단위:명(%)	
구분	집단	N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안될 것이다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df	χ^2
성별	남	287	75(26.1)	98(34.1)	79(27.5)	18(6.3)	17(5.9)	4	32.11***
	여	259	22(8.5)	92(35.5)	104(40.2)	18(6.9)	23(8.9)		
학년별	1학년	29	12(41.4)	8(27.6)	7(24.1)	1(3.4)	1(3.4)	8	14.53
	2학년	88	16(18.2)	35(39.8)	24(27.3)	7(8.0)	6(6.8)		
	3학년	429	69(16.1)	147(34.3)	152(35.4)	28(6.5)	33(7.7)		
학교별	공업계	197	51(25.9)	70(35.5)	53(26.9)	10(5.1)	13(6.6)	8	45.55***
	상업계	214	13(6.1)	78(36.4)	96(44.9)	14(6.5)	13(6.1)		
	특성화	135	33(24.4)	42(31.1)	34(25.2)	12(8.9)	14(10.4)		
지역별	제주시	216	29(13.4)	77(35.6)	79(36.6)	15(6.9)	16(7.4)	8	20.52**
	서귀포	59	22(37.3)	20(33.9)	12(20.3)	3(5.1)	2(3.4)		
	북제주	271	46(17.0)	93(34.3)	92(33.9)	18(6.6)	22(8.1)		
전체		546	97(17.8)	190(34.8)	183(33.5)	36(6.6)	40(7.3)		

** $p<.01$, *** $p<.0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60.2%로 여학생 44.0%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학생들이 비교적 재학중인 학과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보여진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교별로는 공업계가 61.4%로 가장 많고, 특성화고도 55.5%로서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상업계는 42.6%로 타 학교보다 낮게 나타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지역별로는 서귀포가 71.2%로 제주시 49.0%, 북제주 51.3%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3) 전공 분야의 직업

학생들이 전공분야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4>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39.6%로 가장 높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35.0%), ‘잘 모르고 있다’(16.5%), ‘충분히 잘 알고 있다’(6.8%), ‘전혀 모르고 있다’(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IV-14> 전공 분야의 직업(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충분히 잘 알고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df	χ^2
성별	남	287	25(8.7)	100(34.8)	114(39.7)	39(13.6)	9(3.1)	4	8.84
	여	259	12(4.6)	91(35.1)	102(39.4)	51(19.7)	3(1.2)		
학년별	1학년	29	2(6.9)	14(48.3)	9(31.0)	4(13.8)	-	8	6.34
	2학년	88	5(5.7)	24(27.3)	38(43.2)	18(20.5)	3(3.4)		
	3학년	429	30(7.0)	153(35.7)	169(39.4)	68(15.9)	9(2.1)		
학교별	공업계	197	15(7.6)	73(38.6)	76(38.6)	27(13.7)	6(3.0)	8	5.24
	상업계	214	11(5.1)	72(33.6)	85(39.7)	42(19.6)	4(1.9)		
	특성화	135	11(8.1)	46(34.1)	55(40.7)	21(15.6)	2(1.5)		
지역별	제주시	216	14(6.5)	79(36.6)	94(36.2)	27(12.5)	2(0.9)	8	12.90
	서귀포	59	4(6.8)	23(39.0)	24(40.7)	8(13.6)	-		
	북제주	271	19(7.0)	89(32.8)	98(36.2)	55(20.3)	10(3.7)		
전체		546	37(6.8)	191(35.0)	216(39.6)	90(16.5)	12(2.2)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남학생 43.5%, 여학생 39.7%로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1학년이 55.2%로 2학년 33.0%, 3학년 42.7%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사들의 전공분야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진로지도에 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5>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반응이 50.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다’(24.9%), ‘충분히 잘 알고 있다’(15.8%), ‘잘 모르고 있다’(7.9%), ‘전혀 모르고 있다’(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는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진로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남교사가 75.5%로 여교사 54.7%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IV-15> 전공 분야의 직업(교사)

구분	집단	N	충분히 잘 알고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df	χ^2
성별	남	102	26(25.5)	51(50.0)	19(18.6)	5(4.9)	1(1.0)	4	21.51***
	여	75	2(2.7)	39(52.0)	25(33.3)	9(12.0)	-		
경력별	5년이하	34	3(8.8)	13(38.2)	11(32.4)	6(17.6)	1(2.9)	20	48.00***
	6-10년	7	1(14.3)	4(57.1)	1(14.3)	1(14.3)	-		
	11-15년	34	4(11.8)	16(47.1)	10(29.4)	4(11.8)	-		
	16-20년	34	3(8.8)	15(44.1)	14(41.2)	2(5.9)	-		
	21-25년	32	2(6.3)	24(75.0)	5(15.6)	1(3.1)	-		
	26년이상	36	15(41.7)	18(50.0)	3(8.3)	-	-		
학교 특성별	공업계	40	11(27.5)	18(45.0)	7(17.5)	4(10.0)	-	8	10.55
	상업계	67	8(11.9)	32(47.8)	22(32.8)	4(6.0)	1(1.5)		
	특성화	70	9(12.9)	40(57.1)	15(21.4)	6(8.6)	-		
교과	전공교과	98	22(22.4)	57(58.2)	18(18.4)	1(1.0)	-	4	26.54***
	인문교과	79	6(7.6)	33(41.8)	26(32.9)	13(16.5)	1(1.3)		
담임	담임	97	7(7.2)	51(52.6)	31(32.0)	7(7.2)	1(1.0)	4	15.47**
	비담임	80	21(26.3)	39(48.8)	13(16.3)	7(8.8)	-		
전체		177	28(15.8)	90(50.8)	44(24.9)	14(7.9)	1(0.6)		

p<.01, *p<.001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경력별로 ‘알고 있다’라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26년 이상’ 집단이 91.7%로 가장 많고, ‘21-25년’ 집단이 81.3%, ‘11-15년’ 집단의 경우도 58.9%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5년 이하’의 집단의 경우는 47%로 타 집단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학교별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특성화고 교사가 70.0%, 공업계 교사가 67.5%로 높은 반면에 상업계 교사는 59.7%로 타 학교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였으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과별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전문교과 교사가 80.6%로 인문교과 교사 49.4%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담임 유무별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비담임이 75.1%로 담임 59.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4)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학생들이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IV-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45.5%로 가장 높으며, ‘대체로 인정받는다’(35.4%), ‘매우 인정받는다’(8.3%),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8.1%),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인정받는다’라는 반응의 경우 남학생 42.8%, 여학생 44.8%로 남녀 모두 비교적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14.7%로 여학생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여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학년별로 ‘인정 받는다’는 반응의 경우 ‘1학년’이 44.8%, ‘2학년’이 47.7%, 3

학년이 42.7%로 모두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인정 받는다’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가 44.4%, 상업계가 43.9%, 특성화고 42.2%로 모두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6>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매우 인정받는다	대체로 인정받는다	보통이다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df	χ^2
성별	남	282	30(10.5)	92(32.3)	122(42.7)	30(10.5)	12(4.2)	4	15.40**
	여	259	15(5.8)	101(39.0)	126(48.6)	14(5.4)	3(1.2)		
학년별	1학년	29	3(10.3)	10(34.5)	15(51.7)	1(3.4)	-	8	4.86
	2학년	88	9(10.2)	33(37.5)	36(40.9)	9(10.2)	1(1.1)		
	3학년	429	33(7.7)	150(35.0)	197(46.0)	34(7.9)	14(3.3)		
학교별	공업계	197	22(11.2)	65(33.2)	81(41.3)	21(10.7)	7(3.6)	8	10.52
	상업계	214	12(5.6)	82(38.3)	102(47.7)	12(5.6)	6(2.8)		
	특성화	135	11(8.1)	46(34.1)	65(48.1)	11(8.1)	2(1.5)		
지역별	제주시	216	16(7.4)	87(40.3)	93(43.1)	16(7.4)	4(1.9)	8	8.67
	서귀포	59	6(10.3)	19(32.8)	26(44.8)	7(12.1)	-		
	북제주	271	23(8.5)	87(32.1)	129(47.6)	21(7.7)	11(4.1)		
전체		546	45(8.3)	193(35.4)	248(45.5)	44(8.1)	15(2.8)		

**p<.01

교사들이 바라본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7>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7>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39.0%, ‘별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반응이 38.4%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인정 받는다’(19.2%),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2.3%), ‘매우 인정받는다’(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인정 받는다’라는 긍정적 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학생들의 반응과는 반대의 결과로 기능인에 대한 사회에서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남교사가 47.0%로 여교사 3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의

<표IV-17>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교사)

단위:명(%)

구분	집단	N	매우 인정받는다	대체로 인정받는다	보통이다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df	χ^2
성별	남	102	1(1.0)	20(19.6)	33(32.4)	44(43.1)	4(3.9)	4	7.11
	여	75	1(1.3)	14(18.7)	36(48.0)	24(32.0)	-		
경력별	5년이하	34	-	8(23.5)	13(38.2)	12(35.3)	1(2.9)	20	21.66
	6-10년	7	-	1(14.3)	2(28.6)	4(57.1)	-		
	11-15년	34	-	6(17.6)	11(32.4)	14(41.2)	3(8.8)		
	16-20년	34	-	5(14.7)	15(44.1)	14(41.2)	-		
	21-25년	32	-	5(15.6)	16(50.0)	11(34.4)	-		
	26년이상	36	2(5.6)	9(25.0)	12(33.3)	13(36.1)	-		
학교별	공업계	40	-	3(7.5)	13(32.5)	21(52.5)	3(7.5)	8	16.57*
	상업계	67	1(1.5)	18(26.9)	28(41.8)	19(28.4)	1(1.5)		
	특성화	70	1(1.4)	13(38.2)	28(40.0)	28(40.0)	-		
교과	전공교과	98	1(1.0)	20(20.4)	30(30.6)	46(46.9)	1(1.0)	4	9.77*
	인문교과	79	1(1.3)	14(17.7)	39(49.4)	22(27.8)	3(3.8)		
답임	담임	97	-	18(18.6)	38(39.2)	37(38.1)	4(4.1)	4	5.77
	비담임	80	2(2.5)	16(20.0)	31(38.8)	31(38.8)	-		
전체		177	2(1.1)	34(19.2)	69(39.0)	68(38.4)	4(2.3)		

*p<.05

경우 ‘6-10년’ 집단이 57.1%, ‘11-15년’ 집단의 경우 44.0%, ‘16-20년’ 집단이 41.2%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26년 이상’ 집단은 36.1%로 타 집단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공업계가 60.0%로 가장 많아 생산직에 근무하는 기능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업계 교사들은 29.9%로 타 학교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전공교과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전공교과 교사가 47.9%로 인문교과 교사 31.6%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교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진로지도 현황 및 만족도

1) 졸업 후 진로결정 상담 대상자

졸업 후의 진로 결정은 누구와 상담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8>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8>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부모, 형제’라는 반응이 48.5%로 가장 높으며, ‘본인’(20.5%), ‘선배, 친구’(17.9%), ‘선생님’(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 학년별로 ‘부모, 형제’와 상담한다는 반응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1학년의 경우는 ‘선배, 친구’와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부모, 형제’다음으로 ‘선배, 친구’와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북제주군 지역의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IV-18> 졸업 후의 진로 결정 상담 대상자

구분		집단	N	본인	부모, 형제	선생님	선배, 친구	기타	df	χ^2
성별	남		282	66(22.9)	136(47.4)	29(10.1)	43(10.1)	13(4.5)	5	10.91
	여		259	46(17.8)	129(49.8)	26(10.0)	26(10.0)	3(1.2)		
학년	1학년		29	3(10.3)	15(51.7)	2(6.9)	9(31.0)	-	10	17.25
	2학년		88	14(15.9)	39(44.3)	6(6.8)	24(27.3)	5(5.7)		
	3학년		429	95(17.9)	211(49.2)	47(11.0)	65(15.2)	11(2.6)		
학교	공업계		197	45(22.8)	103(52.3)	18(9.1)	25(12.7)	6(3.0)	10	16.83
	상업계		214	47(22.0)	97(45.3)	26(12.1)	41(19.2)	3(1.4)		
	특성화		135	20(14.8)	65(48.1)	11(8.1)	32(23.7)	7(5.2)		
지역	제주시		216	37(17.1)	105(48.6)	20(9.3)	45(20.8)	9(4.2)	10	14.03
	서귀포		59	10(16.9)	26(44.1)	7(11.9)	16(27.1)	-		
	북제주		271	65(24.0)	134(49.4)	28(10.3)	37(13.7)	7(2.6)		
전체			546	112(20.5)	265(48.5)	55(10.1)	98(17.9)	16(2.9)		

2) 학교에서의 진로상담 대상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구와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19>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9>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담임교사’라는 반응이 58.2%로 가장 높으며, ‘기타’(31.8%), ‘전공교과 교사’(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는 2.4%로 매우 낮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주로 진로상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9> 학교에서 진로상담 대상자(학생)

구분		집단	N	단위:명(%)				df	χ^2
	담임교사			전공교과 교사	진로상담 교사	인문교과 교사	기타		
성별	남	282	151(52.6)	28(9.8)	11(3.8)	1(0.3)	96(33.4)	5	16.71**
	여	259	167(64.5)	11(4.2)	2(0.8)	2(0.8)	77(29.7)		
학년	1학년	29	16(55.2)	1(3.4)	1(3.4)	-	11(37.9)	10	19.79*
	2학년	88	40(45.5)	11(12.5)	5(5.7)	-	32(36.3)		
	3학년	429	262(61.1)	27(6.3)	7(1.6)	3(0.7)	130(30.3)		
학교	공업계	197	109(55.3)	21(10.7)	6(3.0)	-	61(31.0)	10	22.08*
	상업계	214	135(63.1)	6(2.8)	1(0.5)	2(0.9)	70(32.7)		
	특성화	135	74(54.8)	12(8.9)	6(4.4)	1(0.7)	42(31.2)		
지역	제주	216	138(63.9)	12(5.6)	4(1.9)	2(0.9)	60(28.7)	10	10.04*
	서귀포	59	30(50.8)	6(10.2)	5(8.5)	-	18(30.5)		
	북제주	271	150(55.4)	21(7.7)	4(1.5)	1(0.4)	95(35.1)		
전체		546	318(58.2)	39(7.1)	13(2.4)	3(0.5)	173(31.8)		

*p<.05, **p<.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남학생 52.6%, 여학생 64.5%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학년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3학년이 61.1%, 1학년이 5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학년은 45.5%로 타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교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정보)계가 63.1%로서 가장 높고, 공업계 55.3%, 특성화고 54.8%로서 높은 반응을 보였고, 공업계 학생들은 전공교과 교사에게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지역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제주시가 63.9%로 가장 높으며, 북제주도 55.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 학생은 진로상담교사와 상담을 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한편, 학교에서 진로상담 대상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IV-20>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0>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담임교사’라는 반응이 85.3%로 가장 높으며, ‘전공교과 교사’(8.5%), ‘진로상담교사’(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진로상담을 주로 담임교사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IV-20> 학교에서 진로상담 대상자(교사)

단위:명(%)

구분	집단	N	담임교사	전공교과 교사	진로상담 교사	인문교과 교사	기타	df	χ^2
성 별	남	102	82(80.4)	12(11.8)	6(5.9)	1(1.0)	1(1.0)	4	10.64*
	여	75	69(92.0)	3(4.0)	-	-	3(4.0)		
경 력 별	5년이하	34	32(94.1)	1(2.9)	-	-	1(2.9)	20	33.64*
	6-10년	7	6(85.7)	1(14.3)	-	-	-		
	11-15년	34	33(97.1)	1(2.9)	-	-	-		
	16-20년	34	31(91.2)	1(2.9)	1(2.9)	-	1(2.9)		
	21-25년	32	27(84.4)	4(12.5)	-	-	1(3.1)		
	26년이상	36	22(61.1)	7(19.4)	5(13.9)	1(2.8)	1(2.8)		
학 교 별	공업계	40	32(80.0)	8(20.0)	-	-	-	8	18.75*
	상업계	67	61(91.0)	2(3.0)	3(4.5)	1(1.5)	-		
	특성화	70	58(82.9)	5(7.1)	3(4.3)	-	4(5.7)		
교 과	전공교과	98	85(86.7)	10(10.2)	3(3.1)	-	-	4	7.10
	인문교과	79	66(83.5)	5(6.3)	3(3.8)	1(1.3)	4(5.1)		
담 임	담임	97	90(92.8)	4(4.1)	-	-	3(3.1)	4	15.34**
	비담임	80	61(76.3)	11(13.8)	6(7.5)	1(1.3)	1(1.3)		
전체		177	151(85.3)	15(8.5)	6(3.4)	1(0.6)	4(2.3)		

* $p < .05$, ** $p < .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여교사가 92.0%, 남교사 80.4%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경력별로는 ‘담임교사’의 경우 대부분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26년 이상’ 집단에서는 타 집단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학교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 고등학교가 91.0%로서 가장 많았으나, ‘전공교과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담임 유무별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의 경우 담임교사가 92.8%로 비담임 교사의 76.3%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3) 상담 내용

학생들이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IV-21>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진학’이라는 반응이 55.5%로 가장 높으며, ‘학업’(9.5%), ‘취업’(8.1%), ‘이성, 친구문제’(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학 진학에 관한 상담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IV-21>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학업	취업	진학	이성, 친구문제	기타	df	χ^2
성별	남	282	33(11.5)	27(9.4)	128(44.6)	7(2.4)	92(32.1)	4	29.73***
	여	259	19(7.3)	17(6.6)	175(67.6)	4(1.5)	44(17.0)		
학년별	1학년	29	3(10.3)	-	10(34.5)	3(10.3)	13(44.8)	8	45.18***
	2학년	88	10(11.4)	9(10.2)	30(34.1)	3(3.4)	36(40.9)		
	3학년	429	39(9.1)	35(8.2)	263(61.3)	5(1.2)	87(20.3)		
학교 특성화	공업계	197	18(9.1)	23(11.7)	99(50.3)	3(1.5)	54(27.4)	8	21.18**
	상업계	214	21(9.8)	14(6.5)	137(64.0)	2(0.9)	40(18.7)		
	특성화	135	13(9.6)	7(5.2)	67(49.6)	6(4.4)	42(31.1)		
지역	제주시	216	19(8.8)	11(5.1)	143(66.2)	2(0.9)	41(19.0)	8	27.93***
	서귀포	59	8(13.6)	3(5.1)	26(44.1)	4(6.8)	18(30.5)		
	북제주	271	25(9.2)	30(11.1)	134(49.4)	5(1.8)	77(28.4)		
전체		546	52(9.5)	44(8.1)	303(55.5)	11(2.0)	136(24.9)		

** $p<.01$, *** $p<.0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67.6%로 남학생 44.6%보다 높게 나타나 진학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학년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3학년이 61.3%로 1학년 34.5%, 2학년 34.1%보다 높게 나타나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학교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가 64.0%로 공업계 50.3%, 특성화고 49.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지역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제주도 학생들이 66.2%로 서귀포지역 44.1%, 북제주 49.4%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업’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북제주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한편, 교사들이 학생과 상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IV-22>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진학’이 42.9%로 가장 높으며, ‘학업’(20.3%), ‘이성, 친구문제’(13.0%), ‘취업’(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반응과 같이 교사들도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진학

<표IV-22> 학생과 상담한 내용 단위:명(%)

구분	집단	N	학업	취업	진학	이성, 친구문제	기타	df	χ^2
성별	남	102	19(18.6)	9(8.8)	46(45.1)	15(14.7)	13(12.7)	4	2.84
	여	75	17(22.7)	5(6.7)	30(40.0)	8(10.7)	15(20.0)		
경력별	5년이하	34	8(23.5)	2(5.9)	10(29.4)	8(23.5)	6(17.6)	20	21.83
	6-10년	7	3(42.9)	-	4(57.1)	-	-		
	11-15년	34	7(20.6)	2(5.9)	17(50.0)	1(2.9)	7(20.6)		
	16-20년	34	8(23.5)	1(2.9)	15(44.1)	6(17.6)	4(11.8)		
	21-25년	32	4(12.5)	4(12.5)	15(46.9)	2(6.3)	7(21.9)		
26년이상	36	6(16.7)	5(13.9)	15(41.7)	6(16.7)	4(11.1)			
학교별	공업계	40	6(15.0)	2(5.0)	21(52.5)	7(17.5)	4(10.0)	8	13.37
	상업계	67	19(28.4)	2(3.0)	27(40.3)	9(13.4)	10(14.9)		
	특성화	70	11(15.7)	10(14.3)	28(40.0)	7(10.0)	14(20.0)		
교과	전공교과	98	19(19.4)	9(9.2)	47(48.0)	12(12.2)	11(11.2)	4	4.86
	인문교과	79	17(21.5)	5(6.3)	29(36.7)	11(13.9)	17(21.5)		
상담	담임	97	17(17.5)	8(8.2)	49(50.5)	9(9.3)	14(14.4)	4	6.27
	비담임	80	19(23.8)	6(7.5)	27(33.8)	14(17.5)	14(17.5)		
전체		177	36(20.3)	14(7.9)	76(42.9)	23(13.0)	28(15.8)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11-15년’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가 가장 높고, ‘학업’이라는 반응의 경우 상업계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과별로 ‘진학’이라는 반응의 경우 전공 교과 교사가 더 많았으나 교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담임유무별로 ‘진학’에 대해 상담했다는 반응의 경우 담임교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이라는 반응의 경우는 비담임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진로지도 만족도

학생들이 진로지도의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23>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반응

<표IV-23> 진로지도 만족도(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매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df	χ^2
성별	남	282	45(15.7)	97(33.8)	104(36.2)	9(3.1)	33(11.0)	5	17.90**
	여	259	31(12.0)	125(48.3)	87(33.6)	5(1.9)	11(4.2)		
학년별	1학년	29	5(17.2)	15(51.7)	6(20.7)	1(3.4)	2(6.9)	10	11.95
	2학년	88	9(10.2)	33(37.5)	32(36.4)	4(4.5)	10(11.4)		
	3학년	429	62(14.5)	174(40.6)	153(35.7)	9(2.1)	31(7.2)		
학교별	공업계	197	29(14.7)	76(38.6)	69(35.0)	4(2.0)	19(9.7)	10	9.19
	상업계	214	25(11.7)	89(41.6)	83(38.8)	6(2.8)	11(5.1)		
	특성화	135	22(16.3)	57(42.2)	39(28.9)	4(3.0)	13(9.6)		
지역별	제주시	216	32(14.8)	103(47.7)	62(28.7)	6(2.8)	13(6.0)	10	16.26
	서귀포	59	12(20.3)	24(40.7)	19(32.2)	1(1.7)	3(5.1)		
	북제주	271	32(11.8)	95(35.1)	110(35.0)	7(2.6)	27(9.5)		
전체		546	76(13.9)	222(40.7)	191(35.0)	14(2.6)	43(7.8)		

**p<.01

이 40.7%로 가장 높으며, ‘그저 그렇다’(35.0%), ‘매우 도움이 된다’(13.9%), ‘전혀 도움이 안된다’(7.8%), ‘도움이 안 된다’(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60.3%로 남학생 49.5%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학년별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의 경우 1학년이 68.9%로 가장 많고, 3학년도 55.1%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2학년은 47.7%로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의 경우 제주도 62.5%, 서귀포 61.0%로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북제주 지역은 46.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24>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63.8%로 가장 높으며, ‘만족한다’(26.0%), ‘만족하지 않는다’(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반응이 많아 진로지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준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남교사가 30.4%로 여교사 20.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력별로는 ‘26년 이상’집단에서 ‘만족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고, ‘5년 이하’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별로 ‘만족한다’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가 32.5%, 특성화고 31.4%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업계는 다른 학교에

<표IV-24> 진로지도 만족도(교사)

단위:명(%)

구분	집단	N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df	χ^2
성 별	남	102	1(1.0)	31(30.4)	64(62.7)	6(5.9)	-	3	6.04
	여	75	-	15(20.0)	49(65.3)	11(14.7)			
경 력 별	5년이하	34	-	7(20.6)	23(67.6)	4(11.8)	-	15	20.02
	6-10년	7	-	-	5(71.4)	2(28.6)			
	11-15년	34	1(2.9)	9(26.5)	18(52.9)	6(17.6)			
	16-20년	34	-	8(23.5)	25(73.5)	1(2.9)			
	21-25년	32	-	7(21.9)	23(71.9)	2(6.3)			
	26년이상	36	-	15(41.7)	19(52.8)	2(5.6)			
학 교 별	공업계	40	1(2.5)	13(32.5)	21(52.5)	5(12.5)	-	6	10.52
	상업계	67	-	11(16.4)	48(71.6)	8(11.9)			
	특성화	70	-	22(31.4)	44(62.9)	4(5.7)			
교 과	전공교과	98	1(1.0)	25(25.5)	62(63.3)	10(10.2)	-	3	0.91
	과 인문교과	79	-	21(26.6)	51(64.6)	7(8.9)			
담 임	담임	97	1(1.0)	22(22.7)	63(64.9)	11(11.3)	-	3	2.44
	비담임	80	-	24(30.0)	50(62.5)	6(7.5)			
전체		177	1(0.6)	46(26.0)	113(63.8)	17(9.6)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과별로도 ‘만족한다’는 반응이 모두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담임교사보다 비담임 교사가 더 만족하다는 반응이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진로지도 횟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지도를 받는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5>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5>에 제시된 것과 같이 ‘1년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이 39.2%로 가장 많고, ‘한 학기에 한번 정도’(28.6%), ‘한 달에 한번 정도’(21.4%), ‘2주에 한번 정도’(5.5%), ‘1주에 한번 정도’(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지도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1년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표IV-25> 진로지도 횟수 (학생)

단위:명(%)

구분	집단	N	1주일에 1회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df	χ^2
성 별	남	282	18(6.3)	11(3.8)	38(13.2)	83(28.9)	137(47.7)	4	34.30***
	여	259	11(4.2)	19(7.3)	79(30.5)	73(28.3)	77(29.7)		
학 년 별	1학년	29	5(17.2)	1(3.4)	8(27.6)	5(17.2)	10(34.5)	8	60.24***
	2학년	88	2(2.3)	-	5(5.7)	18(20.5)	63(71.6)		
	3학년	429	22(5.1)	29(6.8)	104(24.2)	133(31.0)	141(32.9)		
학 교 별	공업계	197	13(6.6)	11(5.6)	25(12.7)	64(32.5)	84(42.6)	8	22.30**
	상업계	214	9(4.2)	15(7.0)	60(28.0)	61(28.5)	69(32.2)		
	특성화	135	7(5.2)	4(3.0)	32(23.7)	31(23.0)	61(45.2)		
지 역 별	제주시	216	8(3.7)	9(4.2)	57(26.4)	65(30.1)	77(35.6)	8	10.49
	서귀포	59	5(8.5)	2(3.4)	12(20.3)	17(28.8)	23(39.0)		
	북제주	271	16(5.9)	19(7.0)	48(17.7)	74(27.3)	114(42.1)		
전체		546	29(5.3)	30(5.5)	117(21.4)	156(28.6)	214(39.2)		

p<.01, *p<.001

47.7%로 여학생 29.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한달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은 여학생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학년별로 ‘1년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의 경우 2학년이 71.6%로서 가장 많고, 2학년이 34.5%, 3학년이 32.9%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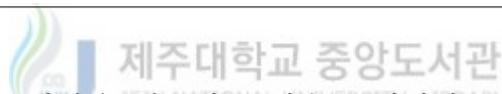
학교별로 ‘1년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의 경우 특성화고 45.2%, 공업계 42.6%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업계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진로지도를 받는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한편, 교사들이 진로지도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6>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6>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이 46.9%로 가장 많으며, ‘한 학기에 한번 정도’(19.2%), ‘2주에 한번 정도’(18.6%), ‘1주일에 1회 이상’(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1년에 한번 정도’는 1.7%에 불과하며, 이것은 교사와 학생이 진로지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

<표IV-26> 진로지도 횡수(교사)

단위: 명(%)

구분	집단	N	1주일에 1회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df	χ^2
성 별	남	102	15(14.7)	21(20.6)	49(48.0)	14(13.7)	3(2.9)	4	6.76
	여	75	9(12.0)	12(16.0)	34(45.3)	20(26.7)	-		
경 력 별	5년이하	34	5(14.7)	5(14.7)	15(44.1)	8(23.5)	1(2.9)	20	21.48
	6-10년	7	1(14.3)	1(14.3)	4(57.1)	1(14.3)	-		
	11-15년	34	4(11.8)	2(5.9)	16(47.1)	11(32.4)	1(2.9)		
	16-20년	34	2(5.9)	9(26.5)	17(50.0)	6(17.6)	-		
	21-25년	32	5(15.6)	11(34.4)	11(34.4)	4(12.5)	1(3.1)		
	26년이상	36	7(19.4)	5(13.9)	20(55.6)	4(11.1)	-		
학 교 별	공업계	40	3(7.5)	8(20.0)	19(47.5)	9(22.5)	1(2.5)	8	6.19
	상업계	67	14(20.9)	13(19.4)	27(40.3)	12(17.9)	1(1.5)		
	특성화	70	7(10.0)	12(17.1)	37(52.9)	13(18.6)	1(1.4)		
교 과	전공교과	98	16(16.3)	16(16.3)	44(44.9)	21(21.4)	1(1.0)	4	3.21
	인문교과	79	8(10.1)	17(21.5)	39(49.4)	13(16.5)	2(2.5)		
답 임	답임	97	13(13.4)	15(15.5)	45(46.4)	21(21.6)	3(3.1)	4	4.31
	비답임	80	11(13.8)	18(22.5)	38(47.5)	13(16.3)	-		
전체		177	24(13.6)	33(18.6)	83(46.9)	34(19.2)	3(1.7)		



은 학생과의 모든 상담을 진로지도 횡수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교사와의 상담만을 진로지도 횡수로 이해하고 있어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의 경우 남교사 48.0%, 여교사 45.3%로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의 경우 ‘6-10년’집단이 57.1%, ‘26년 이상’집단이 55.6%, ‘16-20년’집단이 50.0%로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 ‘21-25년’ 집단이 34.4%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는 반응의 경우 특성화고 52.9%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상업계는 40.3%로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진로지도 시간

학생들이 진로지도는 주로 어느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IV-27>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7>에 제시된 것과 같이 ‘기타시간’이라는 반응이 39.7%로 가장 많으며, ‘학급활동 시간에’(21.4%), ‘점심시간에’(17.0%), ‘조회, 종례시간에’(11.0%), ‘방과후에’(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시간’에 상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상 실습시간을 이용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7> 진로지도 시간 (학생)

단위: 명(%)

구분	집단	N	학급활동시간에	점심시간에	방과후에	조회,종례시간에	기타	df	χ^2
성별	남	282	62(21.6)	28(9.8)	24(8.4)	38(13.2)	135(47.0)	4	33.05***
	여	259	55(21.2)	65(25.1)	35(13.5)	22(8.5)	82(31.7)		
학년별	1학년	29	1(3.4)	8(27.6)	5(17.2)	2(6.9)	13(44.8)	8	27.93***
	2학년	88	14(15.9)	4(4.5)	11(12.5)	9(10.2)	50(56.8)		
	3학년	429	102(23.8)	81(18.9)	43(10.0)	49(11.4)	154(35.9)		
학교별	공업계	197	53(26.9)	16(8.1)	7(3.6)	27(13.7)	94(47.7)	8	96.56***
	상업계	214	48(22.4)	64(29.9)	16(7.5)	21(9.8)	65(30.4)		
	특성화	135	16(11.9)	13(9.6)	36(26.7)	12(8.9)	58(43.0)		
지역별	제주시	216	38(17.6)	59(27.3)	33(15.3)	16(7.4)	70(32.4)	8	52.87***
	서귀포	59	11(18.6)	10(16.9)	11(18.6)	6(10.2)	21(35.6)		
	북제주	271	68(25.1)	24(8.9)	68(25.1)	38(14.0)	126(46.5)		
전체		546	117(21.4)	93(17.0)	59(10.8)	60(11.0)	217(39.7)		

***p<.0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진로지도는 ‘기타시간’을 제외하고 ‘학급활동시간’이라는 반응이 남녀 모두 높으며, 여학생은 ‘점심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학년별로 진로시간은 ‘기타시간’을 제외하고 3학년이 ‘학급활동시간’을 이용한다는 반응이 높고, 1학년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는 반응이 많아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교별로 진로지도는 상업계는 ‘점심시간’이라는 반응이 높고, 특성화고는 ‘방과후에’라는 반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01$). 지역별로 진로지도는 ‘기타시간’을 제외하고 제주도 학생은 ‘점심시간’이 많고, 북제주 학생은 ‘학급활동시간’과 ‘방과 후에’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한편, 교사들은 진로지도를 주로 어느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IV-28>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8>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급활동시간에’와 ‘기타’라는 반응이 29.4%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에’(18.1%), ‘점심시간에’(14.1%), ‘조회, 종례시간에’(9.0%)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급활동 시간’에 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시간’은 실습시간 등을 이용한 상담활동으로 보여진다.

<표IV-28> 진로지도 시간(교사)

단위: 명(%)

구분	집단	N	학급활동시간에	점심시간에	방과후에	조회,종례시간에	기타	df	χ^2
성별	남	102	29(28.4)	12(11.8)	19(18.6)	10(9.8)	32(31.4)	4	1.54
	여	75	23(30.7)	13(17.3)	13(17.3)	6(8.0)	20(26.7)		
경력별	5년이하	34	9(26.5)	5(14.7)	5(14.7)	4(11.8)	11(32.4)	20	21.76
	6-10년	7	-	1(14.3)	3(42.9)	2(28.6)	1(14.3)		
	11-15년	34	12(35.3)	6(17.6)	7(20.6)	3(8.8)	6(17.6)		
	16-20년	34	12(35.3)	5(14.7)	5(14.7)	4(11.8)	8(23.5)		
	21-25년	32	12(37.5)	3(9.4)	4(12.5)	3(9.4)	10(31.3)		
	26년이상	36	7(19.4)	5(13.9)	8(22.2)	-	16(44.4)		
학교 특성별	공업계	40	11(27.5)	6(15.0)	4(10.0)	7(17.5)	12(30.0)	8	11.58
	상업계	67	22(32.8)	12(17.9)	9(13.4)	4(6.0)	20(29.9)		
	특성화	70	19(27.1)	7(10.0)	19(27.1)	5(7.1)	20(28.6)		
교과	전공교과	98	33(33.7)	11(11.2)	18(18.4)	11(11.2)	25(25.5)	4	4.97
	인문교과	79	19(24.1)	14(17.7)	14(17.7)	5(6.3)	27(34.2)		
답	답입	97	34(35.1)	15(15.5)	15(15.5)	13(13.4)	20(20.6)	4	13.56**
	비답입	80	18(22.5)	10(12.5)	17(21.3)	3(3.8)	32(40.0)		
전체		177	52(29.4)	25(14.1)	32(18.1)	16(9.0)	52(29.4)		

** $p<.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학급활동시간에’라는 반응의 경우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경력별로는 ‘학급활동시간에’라는 반응의 경우 ‘11-15년’ 집단이 52.9%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6년이상’집

단의 경우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다는 반응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 ‘방과후에’라는 반응의 경우 특성화고 교사가 많고, ‘조회, 종례시간에’는 공업계 교사가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담임유무별로 ‘학급활동 시간에’라는 반응의 경우 담임이 50.6%로 비담임 교사 35.0%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7) 진로 지도 기회

학교에서 진로지도의 기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29>에 제시되어 있다. <표IV-29>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38.6%로 가장 많고, ‘전혀 충분하지 않다’(22.5%), ‘충분하지 않다’(18.7%), ‘충분하다’(16.8%), ‘매우 충분하다’(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충분하다’는 긍정적 반응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기회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로의 날 운영 등 시간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필요로 한다.

<표IV-29> 진로지도 기회 (학생)

단위: 명(%)

구분	집단	N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않다	df	χ^2
성 별	남	282	14(4.9)	55(19.2)	93(32.4)	52(18.1)	73(25.4)	4	14.98**
	여	259	4(1.5)	37(14.3)	118(45.6)	50(19.3)	50(19.3)		
학 년 별	1학년	29	3(10.3)	7(24.1)	12(41.4)	5(17.2)	2(6.9)	8	17.60*
	2학년	88	4(4.5)	11(12.5)	28(31.8)	15(17.0)	30(34.1)		
	3학년	429	11(2.6)	74(17.2)	171(39.9)	82(19.1)	91(21.2)		
학 교 별	공업계	197	9(4.6)	39(19.8)	71(36.0)	31(15.7)	47(23.9)	8	13.02
	상업계	214	2(0.9)	28(13.1)	93(43.5)	43(20.1)	48(22.4)		
	특성화	135	7(5.2)	25(18.5)	47(34.8)	28(20.7)	28(20.7)		
지 역 별	제주시	216	5(2.3)	35(16.2)	79(36.6)	50(23.1)	47(21.8)	8	14.75
	서귀포	59	5(8.5)	14(23.7)	22(37.3)	10(16.9)	8(13.6)		
	북제주	271	8(3.0)	43(15.9)	110(40.6)	42(15.5)	68(25.1)		
전체		546	1(3.3)	92(16.8)	211(38.6)	102(18.7)	123(22.5)		

* $p<.05$, ** $p<.01$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전혀)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남학생이 43.5%로 여학생 38.6%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학년별로 ‘(전혀)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2학년이 51.1%로 가장 많고, 3학년 40.3%로 높은 반면에 1학년은 24.1%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학교별로는 공업계 39.6%, 상업계 42.5%, 특성화고 41.4%로 모두 높은 반응을 보여 진로지도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지역은 ‘충분하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교사들이 학교에서 진로지도의 기회에 대하여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IV-30>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48.6%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28.8%), ‘충분하다’(14.1%), ‘전혀 충분하지 않다’(8.5%)의 순이며 ‘매우 충분하다’는 반응은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충분하다’는 긍정적 반응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도 학생들의 반응과 같이 진로지도 기회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여교사가 70.6%로 남자교사 47.1%에 비해 높은 반응을 나타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경력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5년 이하’집단이 76.4%로서 ‘21-25년’집단이 37.5%에 비해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상업계가 65.6%로 가장 많고, ‘충분하다’는 반응은 특성화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과별로는 인문교과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에 전공교과 교사들은 ‘충분하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IV-30> 진로지도 기회(교사)

단위: 명(%)

구분	집단	N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않다	df	χ^2
성별	남	102	-	20(19.6)	34(33.3)	43(42.2)	5(4.9)	3	12.50**
	여	75	-	5(6.7)	17(22.7)	43(57.3)	10(13.3)		
경력별	5년이하	34	-	2(5.9)	6(17.6)	25(73.5)	1(2.9)	15	23.85
	6-10년	7	-	2(28.6)	1(14.3)	3(42.9)	1(14.3)		
	11-15년	34	-	5(14.7)	9(26.5)	17(50.0)	3(8.8)		
	16-20년	34	-	2(5.9)	14(41.2)	13(38.2)	5(14.7)		
	21-25년	32	-	7(21.9)	13(40.6)	9(28.1)	3(9.4)		
	26년이상	36	-	7(19.4)	8(22.2)	19(52.8)	2(5.6)		
학교 특성별	공업계	40	-	6(15.0)	11(27.5)	22(55.0)	1(2.5)	6	8.69
	상업계	67	-	5(7.5)	18(26.9)	37(55.2)	7(10.4)		
	특성화	70	-	14(20.0)	22(31.4)	27(38.6)	7(10.0)		
교과	전공교과	98	-	20(20.4)	25(25.5)	46(46.9)	7(7.1)	3	7.55
	인문교과	79	-	5(6.3)	26(32.9)	40(50.6)	8(10.1)		
담임	담임	97	-	14(14.4)	26(26.8)	46(47.4)	11(11.3)	3	2.45
	비담임	80	-	11(13.8)	25(31.3)	40(50.0)	4(5.0)		
	전체	177	-	25(14.1)	51(28.8)	86(48.6)	15(8.5)		

**p<.01

8) 진로에 대한 정보

학교에서의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지 학생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IV-31>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충분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는 반응이 49.1%로 가장 많고, ‘전혀 충분하지 않다’(15.6%), ‘충분하다’(13.4%), ‘매우 충분하다’(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충분하다’는 긍정적 반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올바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37.8%, 남학생 33.1%로 모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표IV-31>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학생)

단위: 명(%)

구분	집단	N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않다	df	χ^2
성별	남	282	8(2.8)	43(15.0)	141(49.1)	43(15.0)	52(18.1)	4	11.70*
	여	259	4(1.5)	30(11.6)	127(49.0)	65(25.1)	33(12.7)		
학년별	1학년	29	1(3.4)	7(24.1)	18(62.1)	1(3.4)	2(6.9)	8	11.77
	2학년	88	3(3.4)	12(13.6)	37(42.0)	20(22.7)	16(18.2)		
	3학년	429	8(1.9)	54(12.6)	213(49.7)	87(20.3)	67(15.6)		
학교별	공업계	197	4(2.0)	31(15.7)	104(52.8)	27(13.8)	31(15.7)	8	23.87**
	상업계	214	4(1.9)	18(8.4)	100(46.7)	62(29.0)	30(14.0)		
	특성화	135	4(3.0)	24(17.8)	64(47.4)	19(14.1)	24(17.8)		
지역별	제주시	216	4(1.9)	24(11.1)	102(47.2)	55(25.5)	31(14.4)	8	17.08**
	서귀포	59	1(1.7)	13(22.0)	35(59.3)	5(8.5)	5(8.5)		
	북제주	271	7(2.6)	36(13.3)	131(48.3)	48(17.7)	49(18.1)		
전체		546	12(2.2)	73(13.4)	268(49.1)	108(19.7)	85(15.6)		

*p<.05, **p<.01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학년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의 경우 2학년이 40.7%로 가장 많고, 3학년도 35.9%로 높게 나타났으나, 1학년은 10.3%로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가 78.5%로 가장 많고, 상업계 43.0%, 특성화고 31.9%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지역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의 경우 제주시가 39.9%로 가장 많은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은 ‘충분하다’는 반응이 22.0%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지 교사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IV-32>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49.2%로 가장 높으며, ‘충분하지 않다’(36.2%), ‘충분하다’(11.3%), ‘전혀 충분하지 않다’(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충분하다’는 긍정적 반응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교사들도

<표IV-32>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교사)

단위: 명(%)

구분	집단	N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않다	df	χ^2
성 별	남	102	1(1.0)	15(14.7)	56(54.9)	28(27.5)	2(2.0)	4	10.51*
	여	75	-	5(6.7)	31(41.3)	36(48.0)			
경 력 별	5년이하	34	-	2(5.9)	15(44.1)	15(44.1)	2(5.9)	20	30.09
	6-10년	7	-	1(14.3)	1(14.3)	5(71.4)	-		
	11-15년	34	-	2(5.9)	17(50.0)	14(41.2)	1(2.9)		
	16-20년	34	-	1(2.9)	17(50.0)	15(44.1)	1(2.9)		
	21-25년	32	-	4(12.5)	18(56.3)	10(31.3)	-		
	26년이 상	36	1(2.8)	10(27.8)	19(52.8)	5(13.9)	1(2.8)		
학 교 별	공업계	40	-	4(10.0)	18(45.0)	18(45.0)	-	8	5.24
	상업계	67	1(1.5)	7(10.4)	35(52.2)	21(31.3)	3(4.5)		
	특성화	70	-	9(12.9)	34(48.6)	25(35.7)	2(2.9)		
전공교 과	과	98	-	12(12.2)	46(46.9)	39(39.8)	1(1.0)	4	4.96
	인문교 과	79	1(1.3)	8(10.1)	41(51.9)	25(31.6)	4(5.1)		
담 임	담임	97	-	5(5.2)	48(49.5)	40(41.2)	4(4.1)	4	11.20*
	비담임	80	1(1.3)	15(18.8)	39(48.8)	24(30.0)	1(1.3)		
전체		177	1(0.6)	20(11.3)	87(49.2)	64(36.2)	5(2.8)		

*p<.05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여교사가 48.0%로 남교사의 29.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경력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경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공업계가 45.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과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전공교과 교사 40.8%, 인문교과 교사 36.7%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담임유무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의 경우 담임 교사가 45.3%로 비담임 교사의 3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9) 진학반 편성의 필요성

학생들이 진학반 편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IV-33>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41.9%로 가장 많으며, ‘조금 필요하다’(27.7%), ‘매우 필요하다’(11.5%), ‘필요하지 않다’(11.0%), ‘전혀 필요 없다’(7.9%)의 순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필요 없다’는 부정적 반응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교에서 진학반을 편성하여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IV-33> 진학반 편성의 필요성(학생)

								단위: 명(%)	
구분	집단	N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없다	df	χ^2
성별	남	282	29(10.1)	78(27.2)	120(41.8)	29(10.1)	31(10.8)	4	8.13
	여	259	34(13.1)	73(28.2)	109(42.1)	31(12.0)	12(4.6)		
학년별	1학년	29	-	11(37.9)	12(41.4)	3(10.3)	3(10.3)	8	11.47
	2학년	88	8(9.1)	22(25.0)	34(38.6)	16(18.2)	8(9.1)		
	3학년	429	55(12.8)	118(27.5)	183(42.7)	41(9.6)	32(7.5)		
학교별	공업계	197	20(10.2)	60(30.5)	84(42.6)	17(8.6)	16(8.1)	8	13.17
	상업계	214	33(15.4)	57(26.6)	90(42.1)	20(9.3)	14(6.5)		
	특성화	135	10(7.4)	34(25.2)	55(40.7)	23(17.0)	13(9.6)		
지역별	제주시	216	30(13.9)	61(28.2)	84(38.9)	29(13.4)	12(5.6)	8	7.64
	서귀포	59	6(10.2)	17(28.8)	26(44.1)	6(10.2)	4(6.8)		
	북제주	271	27(10.0)	73(26.9)	119(43.9)	25(9.2)	27(10.0)		
전체		546	63(11.5)	151(27.7)	229(41.9)	60(11.0)	43(7.9)		

특성별로 보면,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여학생이 41.3%, 남학생이 37.3%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3학년이 40.3%로 2학년 3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별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상업(정보)계가 42.0%, 공업계 40.7%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

들은 32.6%로 타 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의 경우 제주시 42.1%, 서귀포시 39.0%, 북제주 36.9%로 모두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이 진학반 편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IV-34>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금 필요하다’는 반응이 39.5%로 가장 많으며, ‘매우 필요하다’(21.5%), ‘필요하지 않다’(16.9%), ‘보통이다’(15.8%), ‘전혀 필요 없다’(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이 진학반 편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34> 진학반 편성의 필요성(교사)

단위: 명(%)

구분	집단	N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없다	df	χ^2
성별	남	102	22(21.6)	35(34.3)	15(14.7)	23(22.5)	7(6.9)	4	6.474
	여	75	16(21.3)	35(46.7)	13(17.3)	7(9.3)	4(5.3)		
경력별	5년이하	34	13(38.2)	11(32.4)	6(17.6)	4(11.8)	-	20	23.64
	6-10년	7	2(28.6)	2(28.6)	2(28.6)	-	1(14.3)		
	11-15년	34	5(14.7)	18(52.9)	5(14.7)	5(14.7)	1(2.9)		
	16-20년	34	9(26.5)	13(38.2)	2(5.9)	7(20.6)	3(8.8)		
	21-25년	32	2(6.3)	13(40.6)	8(25.0)	6(18.8)	3(9.4)		
	26년이상	36	7(19.4)	13(36.1)	5(13.9)	8(22.2)	3(8.3)		
학교 특성별	공업계	40	11(27.5)	18(45.0)	4(10.0)	7(17.5)	-	8	10.59
	상업계	67	10(14.9)	27(40.3)	11(16.4)	15(22.4)	4(6.0)		
	특성화	70	17(24.3)	25(35.7)	13(18.6)	8(11.4)	7(10.0)		
교과	전공교과	98	18(18.4)	36(36.7)	20(20.4)	17(17.3)	7(7.1)	4	4.67
	인문교과	79	20(25.3)	34(43.0)	8(10.1)	13(16.5)	4(5.1)		
담임	담임	97	19(19.6)	37(38.1)	17(17.5)	16(16.5)	8(8.2)	4	2.30
	비담임	80	19(23.8)	33(41.3)	11(13.8)	14(17.5)	3(3.8)		
전체		177	38(21.5)	70(39.5)	28(15.8)	30(16.9)	11(6.2)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진학반이 ‘필요하다’는 반응의 경우 여교사가 68.0%로 남교사 55.9%에 비해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력별로 진학반이 ‘필요하다’는 반응의 경우 ‘5년 이하’집단이 70.6%로 가장 높으며, ‘11-15년’집단이 67.6%, ‘16-20년’집단의 경우도 64.7%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21-25년’집단의 경우 46.9%로 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별로 ‘필요하다’는 반응의 경우 공업계교사가 73.5%로 가장 많고, 특성화고 교사가 60.0%로 높은 편이나 상업계 교사는 55.2%로 타 학교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과별로 진학반이 ‘필요하다’는 반응의 경우 인문교과 교사가 68.3%로 전공교과 교사 55.1%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로지도 방향의 재정립 기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진로지도방향의 재정립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600명과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교사 182(91%)부, 학생 573(95.5%)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 한쪽에 치우친 응답이나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불성실한 응답자 교사 5부, 학생 27부를 제외한 교사177부와 학생 546부 등 총 723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 및 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

진학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p<.001$), 학년별로는 3학년이($p<.001$), 학교별로는 상업계 학생들이($p<.001$), 지역별로는 제주시 학생들이($p<.01$)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본인'과 '부모, 형제'가 많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들이($p<.05$), 학교별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p<.001$), 지역별로는 제주시 학생들이($p<.001$)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희망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보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로 상업계 학생들이($p<.001$) 높게 나타났다. 직업 선택시 고려할 사항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 능력'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들은 '실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들이($p<.001$), 학교별로는 상업계가($p<.01$), 학년별로는 3학년이($p<.05$)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기술'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래의 직업은 '전문기술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들이($p<.001$)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별, 지역별, 학년별($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졸업 후의 진로는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학년별로는 3학년, 학교별로는 상업계가($p<.01$), 지역별로는 제주시 학생들이($p<.05$)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 진학 이유는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고 응답이 많았으며, 학교별, 지역별($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보면 중학교에서 실업계고교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p<.05$), 지역별($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성별로 남학생이($p < .001$), 학년별로는 2학년이, 학교별로는 공업계가($p < .001$), 지역별로는 서귀포시($p < .01$)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해 학생들은 정보 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들은 전공분야의 직업을 알고 진로지도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교사가($p < .001$), 경력별로는 경력이 높을수록($p < .001$), 학교별로는 공업계 교사가, 교과별로는 전공교과 교사들이($p < .001$)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로 학생들은 ‘인정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 < .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교사가, 경력별로는 경력이 높을수록, 학교별로는 공업계($p < .05$), 교과별로는 전공교과 교사들이($p < .05$) 더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넷째, 진로지도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보면 졸업 후 진로 결정은 ‘부모, 형제’와 상담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 대상으로는 ‘담임교사’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p < .01$), 학년별로는 3학년이($p < .05$), 학교별로는 상업계가($p < .05$), 지역별로는 제주시가($p < .05$)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들도 진로 상담 대상으로 ‘담임교사’라는 반응이 높았으며, 성별, 경력별, 학교별($p < .05$), 담임유무별($p < .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내용은 ‘진학’에 관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p < .001$), 학년별로는 3학년이($p < .001$), 학교별로는 상업계가($p < .01$)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p < .01$)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진로지도 횟수는 학생들이 ‘1년에 한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p < .001$), 학년별로는 2학년들이($p < .001$), 지역별로는 북제주군 학생들이 진로지도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한달에 한번’ 진로지도를 한다고 응답하여 진로지도의 시각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로지도 시간은 필요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은 학급활동시간과 기타시간에 진로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담임여부($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상담 기회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불충분하다’는 부정적 반응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학생이($p < .01$), 학년별로는 2학년이($p < .05$)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성별로는 여교사가($p < .01$), 경력별로는 경력이 낮을수록 상담기회가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진로에 대한 정보도 교사와 학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들이($p < .05$), 학교별로는 공업계 학생들이($p < .01$) 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경력별로는 경력이 낮을수록 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학반 편성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들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사들은 성별로 여교사가, 경력별로는 경력이 낮을수록 학교별로는 공업계 교사가, 교과별로는 인문교과 교사가 더 진학반 편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진로지도 연구와 상담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진

로지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중학교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에 대한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맞춰 진학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교육과정의 유연성 등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현실적응과 함께 의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직업 선택시 고려할 사항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래의 직업에 대하여는 전공과는 관계없이 전문기술직과 서비스직 등을 선호하고 있어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주로 부모, 형제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교사와 의논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진로 상담은 담임교사가 맡고 있으나 담임교사는 주로 학생들의 학교성적 관리 및 진학지도에 전념하면서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수업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뺏겨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로지도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진로지도의 횡수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진로상담 기회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토로하고 있어, 진로지도만을 주 업무로 하는 교사를 배치하여 충분한 정보 수집과 개인의 흥미, 적성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고 만족할 만한 진로지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 이유로는 학문을 쌓기 위함보다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진학반을 편성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관련 수업도 실시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하며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진로지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인문숭상의식과 학력차별로 인하여 고졸 학력으로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고학력 위주의 풍토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대학진학을 부추기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학력보다는 능력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길석(2001). 실업계고교생의 직업포부와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무섭외 13명(1999). 실업계 고교 종합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석희(1998). 제주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대응 및 진로정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 김원태(1996).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근(1998). 상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일(2002).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충기(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원사.
- 김충기(1993).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김희선(1999). 상업계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문호순(1999).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1997). 진로·상담교육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
- 서정열(1991). 고교생의 직업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양수(200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올바른 진로지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1993).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방안. 연세교육연구(제6권).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규승(1997).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실태분석.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상오(1997). 외국의 진로교육. 교육개발 통권 제110호. 한국교육개발원.
- 이승철(1999).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성원사.
- 이정근(1992).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출판사.
- 임두순(1999). 교육심리학과 진로교육. 서울: 원미사.
- 진미석·손유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능력개발원.
- 장명희(1998).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방안. 서울: 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 98-18.
- 장석민(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장석민외 4인(1988). 진학과 직업선택을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창원외(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성숙(1999). 實業界 高等學生의 職業觀과 進路意識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현(1999). 사회 변화와 진로지도의 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 정현주(2002). 工業界高等學校 學生들의 進路選擇 및 進路 指導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충영(2000).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진로교육의 편람. 제주: 제주도교육연구원.
- 제주학생문화원(2000). 제주진로교육.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2002). 교육과정 자율운영을 통한 공업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실업계고 교육 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보고서. 청

주기계공업고등학교

-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1999). 제7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자료 개발.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
- 최창울(2000).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진로교육학회(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허현(2000).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err, E. L., & Cramer, S, H.(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long span: Systematic approaches*(5th ed.). NY: Harper Collins.
- Isaacson, L. E., & Brown, D.(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Reardon, R. C., Lenz, J. G., Sampson, J. P., & Peterson, G. N.(2000). *Career development and planning: A comprehensive approach*. Belmont, CA: Brooks/Cole.
- Zunker, V. G.(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Guidance for Student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Jeju

Kim, Jae Heu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ong Pi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guidance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o suggest appropriate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career guidanc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developed a questionnaire under the guidance of the academic advisor and distributed 800 copies(600 for students and 200 for teachers). to students and teachers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Jeju. Among them, 623 copies(546 for students and 177 for teachers) were returned and analyzed using SPSS 10.0.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students in middle schools had few chances for career guidance, so they entered high schools based on their achievement scores in middle schools without thinking their aptitude and futur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5, 2004

Also, many students replied that if they have another chance to change their school choice, they will select other schools, so making students adapt to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re is a necessity for making the curriculum and vocational programs more flexible.

Second, when selecting a job, students and teachers thought that one's aptitude and capacity should be considered. Also, students thought that one should increase his/her ability to get a good job. However, students preferred jobs which were not directly related their majors, so they need to change their mindset on the job.

Third, students usually spoke their parents or sibling about their career after graduating schools, and few students consulted with teachers. Also, students and teachers discontented that they have not enough time, information or opportunities for career guidance. This suggests that it's time to think about hiring counselor to gather information and to develop materials for more effective career guidance.

Fourth, many students want to enter a university rather than get a job, for get a better job. Thus, vocational high schools should provide helps for students who want to enter a university, with career guidance for students who want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Fifth, students and teachers replied that our society set low values on technicians and do not treat technicians on the same footing as persons who have other jobs. Thus, our mindsets should be changed to make one's ability rather than academic backgrounds value.

<부록>

설 문 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진로지도에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 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재 흥 드림

* 다음은 개인사항입니다. ()안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남 () ②여 ()
2. 경 력 :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년 이상()
3. 학 교 : ①공업계 () ②상업(정보)계 () ③ 특성화고 ()
4. 교과별 : ①전공교과 () ②인문교과()
5. 담임유무 : ① 맡고 있다() ② 맡고 있지 않다 ()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안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지도 상담을 주로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 ① 담임 교사 () ② 전공교과 교사 () ③ 진로상담 교사 ()
- ④ 인문교과 교사 () ⑤ 기타 ()

2.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학업 () ② 취업 () ③ 진학 ()
④ 이성, 친구 문제 () ⑤ 기타 ()

3. 학생들이 교사의 진로지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다 () ② 만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다 ()

4. 학교에서 학생들과 장래 진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까?

- ① 1주일에 한번 이상 () ② 2주에 한번 정도 ()
③ 한달에 한번 정도 () ④ 한 학기에 한번 정도 ()
⑤ 1년에 한번 정도 ()

5. 진로상담은 주로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학급활동 시간에 () ② 점심시간에 () ③ 방과후에 ()
④ 조회·종례 시간에 () ⑤ 기타 ()

6.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

7.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

8. 학생의 장래 직업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신의 적성, 능력 () ② 임금수준 () ③ 직업의 장래성 ()
- ④ 전공관련 여부 () ⑤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 ()

9. 학생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 () ② 실력 () ③ 배경 () ④ 기술 () ⑤ 외모 ()

10. 전공분야 관련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충분히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고 있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

11. 선생님의 학교에서 진학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 없다 ()

12.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받는다 () ② 대체로 인정받는다 ()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
- ⑤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학교나 개인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협조하는 뜻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 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재 흥 드림

* 다음은 개인사항입니다. ()안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남 () ②여 ()
2. 학 년 : ①1학년 () ②2학년 () ③3학년 ()
3. 학 교 : ①공업계 () ②정보(상업)계 () ③ 특성화고 ()
4. 지 역 :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③북제주군()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안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 ()
- ② 중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 ()
- ③ 빠른 취업을 위해서 ()
- ④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 ⑤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서 ()

2.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진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본인 () ② 부모, 형제, 친지 () ③ 선생님 ()
- ④ 친구, 선배 () ⑤ 기타 ()

3. 현재 재학중인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대단히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불만족 한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

※ ①,②,③번 선택 시 '4'번 문항으로, ④,⑤번 中 선택하셨다면 '3-1' 문항으로

3-1.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성이 맞지 않아서 () ② 장래성이 없을 것 같아서 ()
- ③ 학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 () ④ 대학 진학이 힘들 것 같아서 ()
- ⑤ 통학하기가 힘들어서 ()

4. 중학교 재학 때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에 대해 진로 교육을 몇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1-2회 () ③ 3-4회 () ④ 5-6회 () ⑤ 7회이상 ()

5. 만약 지금 학생에게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인문계로 진학하겠다 () ② 전공을 바꾸고 싶다 ()
- ③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 ()
- ④ 진로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

6.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졸업 후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7.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학에 진학하겠다 () ② 취업하겠다 () ③ 사업을 하겠다 ()
④ 아직 잘 모르겠다 () ⑤ 기타(학원수강, 기능취득) ()

※ ①번 선택시 7-1번 문항으로, ②번 선택시 7-2번 문항으로, ③④⑤번 선택시 8번 문항으로 가시오.

7-1.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 ② 학벌이 중요하므로 ()
③ 보다 높은 학문을 쌓기 위해 ()
④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
⑤ 다른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므로 ()

7-2.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
②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③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
④ 진학하고 싶어도 성적이 낮아서 ()
⑤ 빨리 사회인이 되고 싶어서 ()

8. 졸업 후의 진로 결정을 누구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 ① 본인 () ② 부모, 형제 () ③ 선생님 ()
④ 선배, 친구 () ⑤ 기타 ()

9. 장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신의 적성, 능력 () ② 임금수준 () ③ 직업의 장래성 ()
④ 전공관련 여부 () ⑤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 ()

10.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 () ② 기술 () ③ 배경 () ④ 실력 () ⑤ 외모 ()

11. 학생은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충분히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고 있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

12. 모든 여건이 허용된다고 할 때 학생이 원하는 장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 ()
② 행정, 관리직 (5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 직업군인, 경찰 등) ()
③ 숙련직 (운전기사, 이·미용사, 기능공, 점원 등) ()
④ 서비스직 (요리사, 웨이터, 보안 업무원 등) ()
⑤ 생산직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 등) ()
⑥ 판매직 (도매·소매업, 음식점, 학원경영 등) ()
⑦ 전문 기술직 (변호사, 교수, 의사, 기자, 연예인, 교사, 운동선수 등)
()
⑧ 농림, 축산업 (농업, 어업, 축산업 등) ()

13. 학교에서 주로 진로지도 상담은 누구와 합니까?

- ① 담임 교사 () ② 전공교과 교사 () ③ 진로상담 교사 ()
④ 인문교과 교사 () ⑤ 기타 ()

14.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학업 () ② 취업 () ③ 진학 ()
④ 이성, 친구 문제 () ⑤ 기타 ()

15. 선생님의 진로지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조금 도움이 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 된다 ()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16. 학교에서 선생님과 장래 진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까?

- ① 1주일에 한번 이상 () ② 2주에 한번 정도 ()
- ③ 한달에 한번 정도 () ④ 한 학기에 한번 정도 ()
- ⑤ 1년에 한번 정도 ()

17. 진로상담은 주로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학급활동 시간에 () ② 점심시간에 () ③ 방과후에 ()
- ④ 조회·종례 시간에 () ⑤ 기타 ()

18.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

19.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

20. 학교에서 진학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 없다 ()

21.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받는다 ()
- ② 대체로 인정받는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
- ⑤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